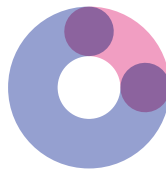




2020



2021



지역순회 간담회사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지역사회 간담회사업
2020-2021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31개 시·군의 지역네트워크와 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CONTENTS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소개	06
2020년, 2021년 사업요약	09
2020년 지역별 간담회	13
2021년 지역별 간담회	97
2021년 권역별 간담회	127
성과 공유회	137
간담회가 던진 숙제	139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소개

1 설립 배경

- 경기지역의 공익활동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
- 2016년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분석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
- 2017년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공익재단 설립 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본격적인 공론화 시작
- 경기도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으로
 - 시민사회를 변화시키고,
 -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 31개 시·군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 앞으로 보다 다양한 모델의 공익활동을 만들어 내고,
 -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함

2 설립 과정

- '18. 04 민선7기 지방선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치정책과제 제안
 - 경기도 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 협치 정책 제안
 - 경기 시민사회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제안
- '18. 06. 경기도 민선 7기 정책과제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등 결정
- '19. 01.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19. 01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운영
- '19. 11. 경기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운영
- '20. 02.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 0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1. 07.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3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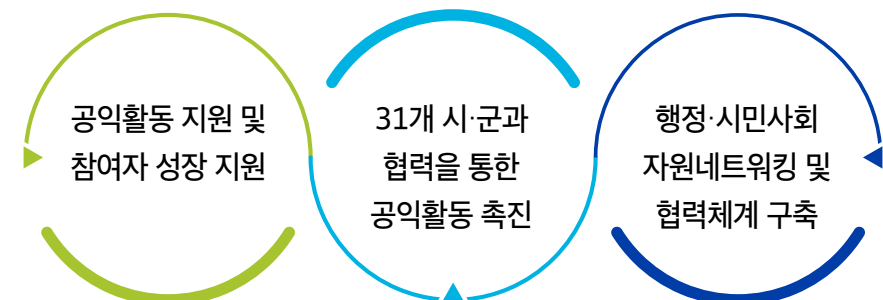
목표

- 도민의 공익활동 보장 및 지원
-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의 촉진
-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세부목표

- 도민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인적·물적 자원 연계 플랫폼
-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체 양성
- 민과 관의 자원네트워킹 및 협력체계 구축
-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전략



4 2021년 사업추진 방향

코로나19 확산 등 변화된 조건에 대응하고 선도하는 활동

- 시·군 공익활동단체 코로나19 대응, 모색 활동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 경기도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방향 연구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과 지원

- 청년공익활동 참여 확대 기반 마련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지원 사업)
-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지속사업 추진

변화를 실현할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성장과 변화 지원

- 공익활동가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구 지원
- 경기지역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마련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마련
- 경기북부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준비
- 시·군 공익활동 지원체계 컨설팅 및 네트워크 강화
- 시·군 간담회를 통한 지역의 네트워크 강화

경기도 공익활동 현장의 요구를 해결하는 활동

-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자문·지원 사업 실행
-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2020년 간담회



2021년 간담회



간담회는

- 지역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 각각의 단체별로만 활동하던 지역의 활동가들이 한 곳에 모여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으로 지원하여
- 지역의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지역별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적 기반마련

센터
설립
7곳

- 안성(통합지원단 / 2021년 4월 개소), 군포 (2021년 5월 개소), 구리(2021년 11월 개소)
- 2022년 개소 예정 : 평택, 성남, 의정부, 광명

조례제정
완료
11곳

- 광명, 군포, 구리, 광주, 평택, 포천, 성남, 김포, 의왕, 안성
- 부천 (조례제정 - 공익센터 근거규정 없음)

조례제정
추진중
9곳

- 용인, 안양, 하남, 양평, 여주, 고양, 의정부, 양주, 연천

간담회 차이점

구분	2020년	2021년
네트워크 방식	• 경기센터-지역 간 (지역마다 찾아가는 서비스)	• 경기센터-지역 간(요청한 지역 추진) • 지역-지역 간(권역별)
내용	• 경기센터의 설립배경 및 과정 • 추진사업 설명 • 지역의 애로사항 및 욕구수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	• 2020년 간담회 이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흐름 - 기본 법안 발의 - 표준조례 배포 • 경기도의 추진상황 - 경기도 조례 개정 • 타 지역 조례제정 및 센터설립 현황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추진한 일

“
지역의
목소리를 듣다!!
”

“
2020년
간담회
”





지역 활동가들의 제안을 사업에 담다

- 인건비 지원
- 쉼 프로그램
- 청년활동가 발굴 및 지원
- 연차별 활동가 모임 지원

- 회계프로그램 및 교육
- 행정교육
- 리더십 교육

인적 지원

역량강화

지역 공익활동가 제안사항

시스템 구축

기타

- 아카이빙
- 정책플랫폼 마련
- 행정 및 정산서류 간소화
- 시민단체 리스트 조사 필요

- 공유공간(회의 장소)
-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자문단 연계 지원

인적 지원

- 인건비 지원
- 쉼 프로그램
- 청년활동가 발굴 및 지원
- 연차별 활동가 모임 지원

Key word

인건비, 청년활동가

코로나19 재난대응 공익활동 지원

- 2020년 ~ 2021년 추진
- 사업비에 인건비 포함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 2021년 추진
- 인건비 지원
-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비영리단체 일 경험
→ 청년활동가(신규활동가) 발굴로 연결

시스템 구축

- 아카이빙
- 정책플랫폼 마련
- 행정 및 정산서류 간소화
- 시민단체 리스트 조사 필요

Key word

아카이빙, 시민단체 조사

비영리민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2021년 추진
- 경기도 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466개 중
986개 단체 응답
- 기본현황, 운영, 활동, 연대와 협력 등 파악

경기시민사회 온라인자료관 구축

- 2022년 사업계획
- 1990년~2020년까지 경기도 시민사회 활동
- 시민사회 주요 활동의 역사 기록

역량 강화

- 회계프로그램 및 교육
- 행정교육
- 리더십 교육

Key word

회계프로그램, 교육

비영리단체 회계교육

- 2021년 추진, 2022년 계속사업
- 회계교육 및 1:1 회계 상담소 운영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지원

- 2022년 사업계획
- 비영리단체 회계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 비영리회계교육 동영상 제작

기타

- 공유공간(회의 장소)
-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자문단 연계 지원

Key word

네트워크, 자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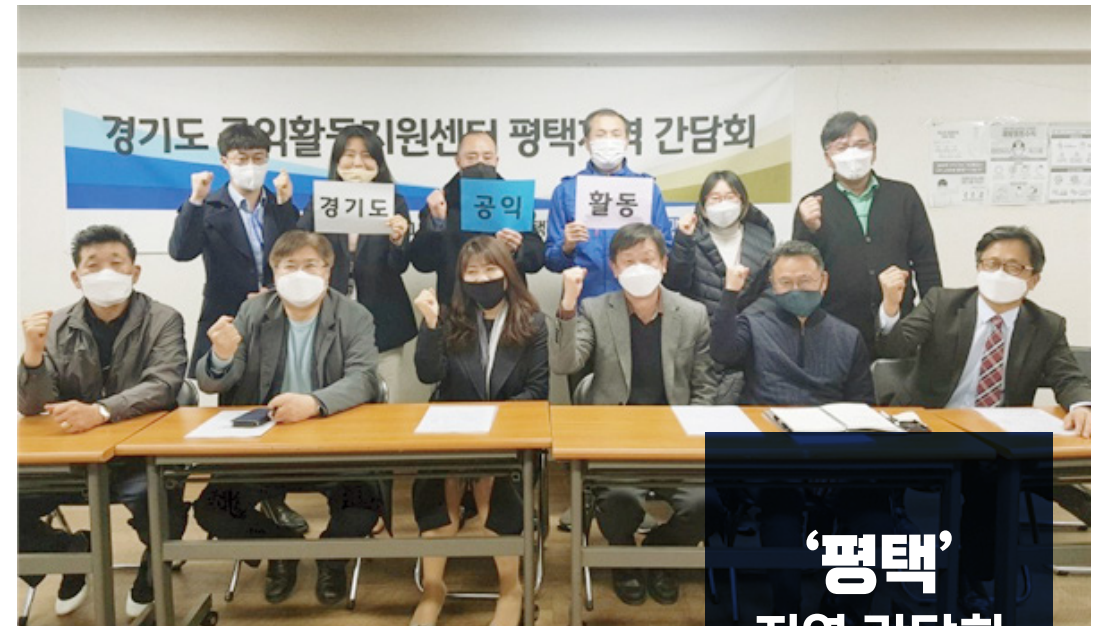
경기도 네트워크 구축

- 2022년 사업계획
- 경기센터-시·군센터 네트워크
- 경기센터-지역별 연대체 및 대표단체 네트워크

공익활동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2021년 자문단 구성
- 2022년 법률 세무, 회계, 노무, 공익활동단체운영, 정책자문 등 본격 운영 예정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31개 시·군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지역 간담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1]

일 시 2020. 04.22(수). 18:00
장 소 평택YMCA 회의실
참여인원 평택시 협치기반조성 실무위원회 14명

행사 내용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과정, 현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현황 파악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공익활동지원 욕구 수렴
-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제안

시·군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초기 설립기반 지원 기대!!

경기도센터가 지역순회간담회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평택시입니다.

이번에 개최된 간담회는 평택시 협치기반조성 실무위원회 소태영위원장께서 경기도센터 설립 추진과정을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긴급히 성사되었습니다.

4월 22일(수), 경기 센터가 찾아가 곳은 평택 협치기반조성 실무위원회 8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YMCA 3층 교육장.

덕분에 간담회에 앞서 열린 실무위원회도 참관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 논의된 사항은 현재 평택시 협치지원과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협력모델개발 연구용역사업과 비영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현안들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민과 관이 합심하여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함께 애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센터의 첫 지역순회간담회가 열렸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민관협력 하에 본격적으로 비영리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에 나선 평택시. 그 어느 곳보다 우리 센터의 설립 추진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데요.

이 날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센터 설립 추진과정과 앞으로 본격 추진 될 사업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참석한 위원님들로부터 격려와 기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평택시가 공익활동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지역시민들과 함께 할 공론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기에 그 어느 곳보다 우리 센터의 지원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센터가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만들어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초기 설립 재정 기반을 지원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 평택시 협치기반조성 실무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협력모델개발 연구용역사업과 비영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현안을 공유했고,
- 향후 평택시 공익활동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지역시민들과 함께 할 공론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경기도센터 설립을 환영해주시고, 또 향후 활동에 큰 관심을 표명해주셨던 평택시 협치기반조성 실무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경기도센터의 공식적인 지역 네트워크로써 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2]

‘안양’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13(수) 11:00
장 소 안양시의회 1층 시민토론폰방
참여인원 15명(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10개 단체

1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6	안양NPO센터추진위원회
2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7	615공동시민실천경기중부본부
3	안양군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	안양여성의회
4	안양YWCA	9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름
5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	행복한마을의료생협

행사 내용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과정, 현 운영현황 및 사업 소개
-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현황 파악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라는 공익활동지원 욕구 수렴
- 지역 네트워크 구축 제안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NPO센터) 건립의 희망을 나누다.

안양지역 시민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5월 13일 오전 11시 안양시의회 1층 시민토론 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시·군 지역순회 간담회로는 두 번째인데요. 이번 안양지역 간담회는 경기도센터와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안양NPO센터 추진위원회 관련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논의를 통해 안양NPO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1년여 간 준비작업과 지역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와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시의회에서도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답게,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1시 늦은 점심식사를 함께할 정도로 시종일관 알차고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근거조례에 담길 내용은 무엇인지, 안양NPO센터 건립 장소는 어디가 좋은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마치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 준비모임 같은 분위기의 간담회였다고나 할까요?

특히 안양지역 간담회에는 최병일 안양시의원과 민병덕 국회의원 당선자도 참여해 지역 시민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활동 활성화를 만들어 가려는 저희 센터에게 안양지역 간담회는 든든한 힘과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안양지역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안양시민사회단체 활동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안양시 NPO센터> 건립을 위해 경기 센터도 함께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경기도민들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찾아 후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 맵핑 작업 필요
-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포털) 운영 필요
-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운영 필요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발표

양숙정 안양NPO센터 추진위 공동대표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 날 간담회는 경기도센터 안명균 센터장의 경기도 센터 설립 추진과정과 앞으로 본격 추진될 사업 소개에 이어, 안양NPO센터 추진위원회 문경식 위원장의 안양NPO센터 추진 경과보고를 들은 후, 본격적으로 <안양NPO 센터> 건립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3]

‘군포’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13(수). 14:00
장 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참여인원 11명(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8개 단체

1	군포아이쿱생협	5	가야사회복지관
2	아시아의 창	6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3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7	군포환경자치시민회
4	군포YMCA	8	녹색전환연구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의 선봉, 군포지역 간담회 개최

경기도 센터가 세 번째로 찾은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03.16.제정)」를 통과시킨 군포시입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간담회 결과가 기대됐던 곳이었는데요. 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당장 앞두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군포시 정책감사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간담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설립 및 사업소개가 끝난 후, 군포시 신청하 정책 감사실장님이 현재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현황을 상세히 공유해주셨습니다. 이미 140평 규모의 센터 공간을 확보했다는 군포시. 지금은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하반기에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스타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일찌감치 앞서가고 있는 지역이라 경기 센터에 대한 기대도 역시 남달랐습니다. 광역단위인 경기 센터와 기초단위 지원센터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경험치 상 31개 시·군 단위 지원센터가 모두 수평적 체계로 설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이나 연대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진단해주셨습니다. 참석자 모든 분들께서 진솔한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간담회 결과를 한 마디 한 마디 빠짐없이 모두 옮겨드리고 싶으나, 지면의 한계로 하단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에 그 내용의 일부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1년 동안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민간TF 참여자들과 그 외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을 비롯해, 경기 센터 활동가들까지 총 19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날은 특별히 경기 센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이 모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현장까지 지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계적인 공익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실현하고 있는 군포시가 있어서 경기 센터의 숙원이 훨씬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에,

지금처럼 군포시가 다른 지역의 모델로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 센터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포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훌륭한 의견들을 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경기도 차원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기초와 광역단위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구분이 필요함. 기초단위에서 고민하기 어려운 영역을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재난이후의 시민사회 비전을 세우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꾸준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함.
- 광역단위 지원센터로서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센터의 규범과 원칙, 절차 등을 제시해줄 수 있기를 바람.
- 광역단위 지원센터는 개별 단체가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기초단위 지원센터가 잘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가치창출과 행정, 예산 지원업무에 치중해야 함.
- 무엇보다 사람을 키워내는 사업이 필요함. 특히 인건비 지원이 관건임.
-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직접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원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4]

‘안성’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14(목). 16:00
장 소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회의실
참여인원 16명(시의회, 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8개 단체

1	더아모의집	5	우리타임즈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안성지부
2	안성시민연대	6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	안성시민교육연구센터	7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8	안성투데이

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논의의 불씨를 다시 지피다.

안성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5월 14일 오후 4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시·군 지역순회 간담회로는 네 번째인데요. 이번 안성지역 간담회는 경기도센터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정인교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도 함께 준비해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경기도센터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셨는데요. 특히 이날 황진택 안성시 의원께서도 참석해 지역 시민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센터소개 이후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 우리 센터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

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훌륭한 말씀들을 모두 담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고, 그 토론 결과는 하단에 간략히 정리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안성시에서도 이미 일찌감치 안성NGO센터와 안성시민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의 비전으로 설정되었었는데, 이후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는데요. 경기도센터는 이번 간담회가 안성시에 다시 한 번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논의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성지역 간담회의 정리 멘트가 담긴 행사 기념컷 슬로건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다시 한 번 함께 외칩니다^^ '안성 공익활동 지원센터 만들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경기도센터도 함께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전문가 컨설팅 운영 필요(법률자문, 실무지원 등)
- 이슈별 연대를 위해 각 지역별·분야별 시민단체 리스트를 조사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필요
- 공익활동 지원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제도권 안으로 현장 인력들이 흡수됨에 따라,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일할 인력은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큼. 사업지원이 늘어나도 이를 실행할 인력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활동가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원플랫폼이나 민간협력 목표도 중요한데 자칫 옥상 옥을 만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과정과 대안이 중요함.
- 전체 지원사업에서 새로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나, 기존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도 발란스를 맞춰 계획될 수 있기를 희망함.
- 공익활동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의 관건임. 공익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건비, 인력관리비용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5]

‘의정부’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15(금). 11:00
장 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회의실
참여인원 9명(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8개 단체

1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5	의정부정의로운노동인권네트워크
2	우리동네협동조합	6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3	의정부민주시민학교	7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4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8	참교육학부모회



경기도센터의 첫 북부지역 간담회 개최

5월 15일(금) 오전 11시, 의정부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정부 지역간담회가 경기도마을 공동체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의정부 지역간담회는 센터의 첫 번째 북부지역 간담회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경기 센터와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제 막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조화롭게 참여하여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 간담회 전체토론에서는 특히 공유공간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 논의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공유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러 활동가분들께서 이구동성 말씀하시길, 공유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원 등 지역 가까이 공간은 많지만, 문제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는 대여가 안 된다는 것! 이렇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자, 바로 즉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퇴근 이후의 시간을 일자리로 만들어 공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공유공간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는 정보공유까지 와글와글 해결책들이 제안되었고, 이를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사업제안을 해보자는 구체적인 의견과 누가 계획을 쓸 것인지 까지 결정되었습니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김성길 국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는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경기도센터 활동가들까지 총 13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지역 간담회의 특징을 말하자면, 오랜 경력으로 의정부지역 시민사회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신 활동가들과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경기도 센터에서는 우선 몇 개 지역을 시범모델로 지원하고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논의 과정만 보더라도,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왔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저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외에도 다른 여느 지역과 같이, 현재 시민사회역량이 과거에 비해 오히려 매우 취약해졌고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무엇보다 청년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간담회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기념컷을 찍었는데요. 역시 오늘 간담회의 슬로건은 “의정부 공유공간 만들자!!!”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정부지역 공유공간 &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전국 최초의 시범모델로 꼭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고, 이를 기회로 향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시민사회 논의도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공유공간 필요
- 청년활동가 육성 대책 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6]

일 시 2020. 05. 19(화). 10:00
장 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대회의실
참여인원 10명(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10개 단체

1	수원이주민센터	6	풍물굿패 삶터
2	수원YWCA	7	(재)수원그린트러스트
3	수원환경운동센터	8	수원YMCA
4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9	수원지역목회자연대
5	수원여성회	10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다시 고민 시작

월 19일(화) 오전 10시, 수원시 공익활동 활성화
를 위한 수원지역 간담회가 경기도공익활동지원
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수원 YWCA) 변남순 공
동운영위원장님의 차분한 인사를 시작으로 간담
회 개최를 알렸는데요 경기도센터 활동가들과 함
께 18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원시 공익활동지원센
터 설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원지역도 그 동안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민
을 여러 차례 해 온 만큼 수원시 공익활동지원센
터 설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으며, 수
원지역 활동가들이 몇 년전부터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센터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지역의 여러 사정
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재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 지역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단
체들이 가진 고민은 같았습니다.

더 많은 지역단체들과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지
역의 사례처럼 시민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
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원지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원지역 공익
활동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

고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하는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
습니다.

끝으로 간담회 결과 정리는 ‘수원 공익활동지원
센터 설립을 위해 다시 고민 시작이다’ 로 하면서
다 함께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경기도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꼭 수
원지역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
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대부분의 단체들이 상근 활동가 1명
으로 행정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
다보니 전문적인 회계와 행정업무 교
육이 꼭 필요함.
- 단체에서 청년활동가들의 활동이 지
속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제
도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 수원지역 단체들의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7]

‘안산’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20(수). 10:00
장 소 커뮤니티공간 토닥토닥
참여인원 26명(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18개 단체

1	시화호생명지킴이	10	좋은이웃
2	들꽃피네사회적협동조합	11	환경연합
3	안산환경운동연합	12	안산여성노동자회
4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13	더좋은공동체
5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14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6	안산YWCA	15	안산민예총
7	안산청년행동 더함	16	KACE 안산
8	함께크는여성 올림	17	민주노총 안산지부
9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	토닥토닥관찰아

안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첫 걸음!!

5월 20일(수) 오전 10시, 안산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산지역 간담회가 커뮤니티공간 토닥 토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그 동안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와 달리 카페에서 진행되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박희경 공동운영위원장님의 여는 인사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센터 활동가들과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30명이 함께 해 더욱 활기찬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 및 안산지역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 안산지역의 시민사회 활동이 31개 시·군중에서도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도 높아져 있지만, 안산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다는 현황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안산간담회를 계기로 참여하신 활동가분들이 먼저 구체적 논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함께 만든 NGO센터들과 시민영역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준비하는 과정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잘 모아내어



차분히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등 진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활발한 연대활동으로 많은 공감을 나누는 나정숙 안산시의원님께서도 참여해서 앞으로 안산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설립된 만큼 활동가분들의 기대와 바라는 점이 많으셨는데요. 다른 지역 간담회에서도 자주 제안되는 내용이 이번 간담회에서도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과제로 만들어 지역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안산지역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협력과 연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모아주셨습니다.

경기도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안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아카이빙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후에 안산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구심점 역할이 필요함. 경기도 31개시군의 자료를 취합하여 모든 단체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최근 사회혁신 플랫폼과 분야별 정책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시민사회에서도 정책공론화 과정을 돕거나 결과를 확산하는 방식의 정책플랫폼이 마련되기를 요청함.
-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경기 지속가능발전대회나 마을공동체 한마당과 같은 광역 차원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음. 공동활동 분야의 행사 추진 시 지역유치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서울NPO지원센터의 경우 지속가능성보고서 지표를 만들어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경기지역에서는 단체의 사업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제안함.
- 다른 중간지원조직은 은행금리를 낮춰주는 등 여러 혜택들이 있음. 공익활동가들에게 교육 및 쉼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더 필요함. 미흡하더라도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함.
- 그 동안 서울NPO센터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사용 중인데 이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니 회계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을 요청함.
- 현재 코로나로 위기 상황이지만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런 비슷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지원해 주길 요청함.
-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센터 자체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함. 안산지역은 청년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있음.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경기도와 매칭 되길 바라고 그런 중간역할을 해 주길 요청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8]

‘성남’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21(목). 14:00
장 소 주민신탁본점 숯골사랑채
참여인원 10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7개 단체

1	성남KYC	5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2	성남녹색소비자연대	6	성남여성의전화
3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7	주민두레생협
4	성남YWCA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재논의를 하다!

5월 21일(목) 오후 2시, 성남시 공익활동 활성화
를 위한 성남지역 간담회가 주민신탁본점 숯골사
랑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남KYC 이준호 대표님의 여는 인사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성남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활동가분들 대부분 함께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회의를 한번도 진행하지 못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 삼아 회의와 간담회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여건상 긴 시간을 갖
고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성남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작년에 성남연대 주최로 2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토론회 기간에 나눈 대부분의 뼈대가 이번 간담
회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공익
활동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
라는 다짐을 남겨주셨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조례제
정도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필요한 지원은 요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설립된 만큼 활
동가분들의 기대와 바라는 점이 많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들 경기도공익활

동지원센터의 과제로 만들어 지역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을 위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의지를 모아
주셨는데요. 그 동안 해 온 것처럼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다
시 시작”하는 성남 시민사회를 기대합니다. 이번
간담회가 성남의 움직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
어 의미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경기 센터는 성남
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 될 수 있도록 기대하
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많은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중심이므로 직
접적인 NGO 활동은 자제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 단체들 네트워
크를 꼭 구축해야 함.
- 경기도의 모든 공모사업의 경우 인건
비를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있는 경
우가 있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례를 만들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09]

‘광명’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26(화). 10:00
장 소 광명YMCA
참여인원 18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0개 단체

1	광명시민단체협의회	6	광명YWCA
2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광명여성익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3	광명여성익전화	8	광명경찰서
4	광명YMCA	9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5	광명시민주시민교육센터	10	광명시민신문

광명 공익활동 활성화! 광명지역 간담회 개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찾은 아홉 번째 지역은 바로 광명시입니다!



5월 26일(화) 오전 10시, 우리 센터가 찾아가는 곳은 광명YWCA 일명 ‘소통과 나눔’ 공간. 허름한 빌딩 안 비좁은 엘리베이터 5층에 내리자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이 확 눈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이곳이 이제 막 리모델링되어 8개의 입주단체를 품게 될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광명 경찰서와 YWCA가 종자돈을 대어 88평의 공유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입주자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공간명도 갖게 될 거라는 이 곳. 이처럼 이미 광명시에 시민단체들의 공유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또 그 공간에서 간담회가 첫 번째 행사로 열린다는 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광명시민단체협의회와 함께 준비

했는데요. 참석자는 경기 센터 활동가들까지 모두 19명. 간담회에 참석했던 시민협 소속 회원단체 활동가들이 한 명 한 명 입주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찾아와 왁자지껄 공간을 구경하며 축하해주는 풍경이 마치 집들이 분위기였다고나 할까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됐던 건 광명시 민협 역시 3년 전에 이미 NPO센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실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해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었다네요. 또 2년 전에는 광명시가 현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NPO센터와 청년주택까지 포함한 다목적시설 건물 확보를 계획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안」이 공포된 만큼, 이 분위기를 잘 탄다면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광명시 NPO센터 논의도 다시 새롭게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였던지, 이 날 간담회에서는 시민협의 활동과 NPO센터의 역할 구분에 대한 질문과 독립성 확보의 문제, 공익활동의 범위와 설립 추진 실무주체에 대한 질문까지 근본적인 내용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모두 공감했던 건,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논의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비해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제도화가 되면 급물살을 타는 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협력과 견제의 역할을 하며 초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광명시민협이 주체가 되어 나서야한다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습니다.

참석해주신 한 활동가분의 말씀이 크게 와 닿습니다.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림을 그려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센터가 필요한 지 아닌 지부터 고민해야합니다. 지금부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듭시다”

경기도센터도 광명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주인이 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늘 함

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광명 시민사회단체들이 스스로 만든 소중한 울타리, 광명 ‘소통과 나눔’ 공간에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광명시민협이 주체가 되어 ‘광명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인사 드립니다.

참! 입주회의가 끝나고 ‘소통과 나눔’ 공간의 공식 이름이 정해지면 센터로도 알려주세요~ 8개 단체가 모여 만든 새로운 이름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심 프로그램 기획·지원
- 지역정책연구사업 지원
- 학계 등 전문가 그룹(자문단) 연계 지원 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0]

**‘시흥’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28(목). 16:00
장 소 시흥YMCA
참여인원 11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8개 단체

1	시흥YMCA	5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2	시화노동정책연구소	6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7	(전)시흥시지부
4	(사)시흥여성의전화	8	시흥시구미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유하다!!

5월 28일(목) 오후 4시, 시흥시 공익활동 활성화
를 위한 시흥지역 간담회가 시흥YMCA 청년살롱
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1
명이 함께 하였으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김수정
소장님께서 여는 인사와 함께 참여자 소개까지
직접 해 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시흥지역의 공익활동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
센터의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
다. 지역마다 활동가 역량과 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상황이 다르므로 시흥지역은 다양한
단체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
견에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함께 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시흥 같은 소도시지역의 경우 중간지원조직
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인적자원이 아직 부족
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흥지역 공익활동가들은 지
역 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향
후 더 많은 소통으로 함께 고민하는 기회로 삼겠
다 하셨습니다. 시흥지역 공익활동가분들이 남겨
주신 활동에서 느끼는 여러 고민들과 제안들은 경
기도 공익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다 함께 노력하겠
다는 의미로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경기도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흥지역의 공
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지역의 여러 사안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
하고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음. 청소년들의 활동지
원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포함
해 연구용역 및 연구사례집 발간이 필
요함. 지역에서도 연구를 희망 할 경
우 매칭 펀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거
를 바람.
- 경기도 공모사업에 인건비 지원은 처
음인 것으로 보임. 많은 단체들이 인
건비 지원을 희망 하므로 공모사업에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인건비지
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 주길 바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1]

‘부천’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5. 29(금). 14:00
장 소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참여인원 19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시민)
참여단체 13개 단체

1	부천YMCA	8	시민
2	부천여성노동자회	9	(사)부천희망재단
3	(사)일과사람	10	부천아이쿱생협
4	부천민예총	11	부천환경교육센터 지평
5	부천시민연합	12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민중오대
6	녹색모임	13	협동조합 커뮤니티플랫폼 이유
7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한걸음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역순회간담회가 어느덧 11번째 간담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지역간담회는 부천시지역인데요 5월 29일(금) 오후2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간담회 시작 전에 부천시민아이쿱 생협에서 참여하신 지역 공익활동가분들을 위해 친환경 간식 꾸러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간식꾸러미에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천시민아이쿱생협 원건형 이사장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부천지역 활동가들이 항상 건강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응원한다' 고 하셔서 활동가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감동과 감사의 인사를 큰 박수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천YMCA 김기현 총장님의 여는 인사와 더불어 참여자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이 23명 참여하셨으며, 부천지역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꼭 필요한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안명균센터장님이 센터설립 취지와 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 해 드렸으며, 첫 번째 질의는 경기도에서 해마다 공모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사업을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모두 사업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을 총괄하여 진행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도리어 지역의 많은 활동가분들이 센터 대한 질의와 바라는 희망 메시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부천지역에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상황이 민관거버넌스 등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빨리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간담회에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하게 되어 지금부터라도 정기모임을 갖고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질의 및 의견들을 주셨고 부천지역의 상황들을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부천지역 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말씀으로 활기찬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부천지역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경기도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부천지역에서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여해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지역에서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많음. 올해는 예산상 어렵다 하더라도 이후 공익활동 아카이빙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함.
- 현재 경기도 지원사업에는 자부담 비율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지원이 안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 법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인건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요청함.
- 공익활동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익활동의 필요성과 자부심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힘든 상황에서도 활동가들이 더욱 결집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이 필요함. 리더십 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회계, 행정업무)을 요청함.
- 지역 공익활동 홍보 등 IT분야가 매우 취약함. 코로나19로 인해 이후 지역에서도 비대면으로 활동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지역의 개별 단체는 역력이 없음.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요청함.
-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기부단체는 회계규정이 매우 엄격함.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행정업무가 매우 어려움. 서류처리절차를 위해 행사부등 여러 곳에 질의해도 모두 다름.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연구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어 주길 요청함.
- 지역 개별단체 활동 진단을 통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를 꼭 시행해 주길 바람.
- 지역의 작은 개별단체들은 예산이 적으므로 전문 회계를 별도로 두기 어려워 회계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함. 부천지역의 10개 단체를 묶어서 전문적인 회계 인원을 두고 운영할 수 방법이 있는지, 어렵다면 회계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회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길 바람.
-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화 시키고 발전 시키는게 중요함. 지역에서 부천YMCA가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YMCA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있어 지원차원에서 많이 차이남.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아무런 지원이 안됨. 그런 사안을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나아가야 할 것이며, 부천지역에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매개로 할 수밖에 없음. 지역 활동가들이 단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단체 활동을 적극 홍보 및 이후 실질적으로 단체에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해야 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2]

일 시 2020. 06. 02(화). 10:00
장 소 의왕시청 별관
참여인원 11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9개 단체

1	416그리고우리들
2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3	바람개비행복마을
4	의왕아이쿱생협
5	의왕풀뿌리희망연대
6	의왕사회적가치연구회
7	모락산아이들공부방
8	의왕촛불행동
9	더불어가는길



의왕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자

6월 2일(화) 오전 10시, 의왕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왕지역 간담회가 의왕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박철하 의왕풀뿌리희망연대 공동대표님께서 시작을 열어주시고, 이어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의왕지역의 활동가분들 11명이 참석하시고, 간담회 개최에 대한 반가움과 기대를 전달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의왕지역은 생활권이 나누어진 지역의 특성 상 공익활동가들의 소통과 왕래가 상시적이지 못했다는 사정을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세월호 촛불, 지역 적폐청산 연대 활동 등에서 소통, 연대하며 조금씩 상황이 변화되어 왔고, 이번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몇 차례 시도가 있었던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에 시동을 거는 기회로 삼아, 이번만큼은 꼭 네트워크 구성이 결실을 맺도록 하자는 의왕 지역활동가들의 의지도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러 의견을 나눈 후 의왕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과 지역 시민사회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TF팀을 먼저 조직하여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시고, 다음 회의일정도 함께 공유한 후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공익활동 활성화 조례제정은 어떤 경로를 밟아 갈 것인지 그리고 의왕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큰 그림에 대한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참석자분들의 공감대가 컸습니다.

지역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활동가들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연대와 협력의 기운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연대의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이번 의왕 지역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깊이 공감하게 하였습니다.

의왕 지역에서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 연대의 기운을 모아내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간담회를 준비하고 진행 해 주신 의왕지역 공익활동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왕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파이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지역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사업을 진행 할 경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3]

‘오산’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6. 02(화). 16:00
장 소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인원 13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9개 단체

1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오산환경운동연합
3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도지부
4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	오산시민연대
6	오산이주노동자센터
7	오산씨앗학교
8	오산평화의소녀상
9	오산IL센터(PAS)



오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논의의 장

6월 2일(화) 오후 4시, 오산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오산지역 간담회가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경남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장님께서 시작을 열어주시고, 이어 참여하신 분들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오산지역의 활동가분들 13명이 참석하였으며, 오산을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더불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안 오산지역에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설립되면 활동가들이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오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나누지는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오산지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오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지역 활동가들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산지역의 공익활동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제안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활동가저장소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셔서 참여한 분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오산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지역의 여러 사안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단체에서 교육 등 지원요청 할 경우 전문가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회계사 등 전문그룹이 구성되어 단체에서 지원요청 할 경우 바로 지원하는 시스템)
- 단체별 대부분 1~2명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므로 행정업무문서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함. 전자결재로 전자문서 및 스캔자료, 원본서류까지 제출 및 보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부서마다 회계 및 행정서류가 다르므로 서식을 통일하고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요청함.
- 지역의 대부분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힘든 점은 웹 홍보, 카드뉴스, 소식지 발행임.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매뉴얼 등 기본양식만이라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가저장소를 구축하여 지원 바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4]

‘광주’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6. 09(화). 18:00
장 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인원 8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8개 단체

1	광수중학교 교사, 전교조하남광주지회
2	경기광주힐링협동조합
3	경기광주 한살림
4	경기광주여성회
5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6	전교조 하남광주지회
7	경기광주교육포럼
8	(사)한국장애인연맹 경기



광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희망을 함께 나누다

6월 9일(화) 오후 6시, 광주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광주지역 간담회가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함께여는광주연대 소속단체 10명이 함께 하셨습니다. 경기광주힐링협동조합 최윤행 대표님께서 시작을 열어주시고 참여자분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광주를 찾아와 간담회를 진행 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며,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내용과 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 필요한 프로세스는 다른 시군 사례도 함께 참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고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의 센터 설립이 시민단체들을 컨트롤 하는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방식 보다는 지역 풀뿌리운동이 기반이 되어, 지역시민재단 같은 아래로 부터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이면 더 좋겠다는 뜻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이후 광주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고,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광주 공익활동지원 시스템 구축에 중간역할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광주지역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들을 담아 간담회 참여자 모두 ‘광주 공

익활동 활성화’로 의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 광주지역 시민운동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념촬영을 끝으로 간담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늦은 식사자리에는 광주시 정책조정실장님도 함께 참여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도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센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주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공론화 사업과 정보 교류와 지역연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체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단체별로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반상근 활동가라도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람.
- 광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해서 조례제정과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데 광주시에 소통할 부서가 없으므로 민관협치과 등 전담창구가 신설될 수있도록 중간역할을 요청함. 경기도 31개 시·군에 민관협치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노력해주기를 바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5]

‘파주’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6. 18(목). 15:00
장 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참여인원 9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6개 단체

1	비정규직센터,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2	파주여성민우회
3	파주이주노동자센터
4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5	파주환경운동연합
6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스스로의 과제와 계획을 만드자

월 18일(목) 오후 3시, 파주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파주지역 간담회가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살롬의 집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파주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의 소속단체 10명이 함께 하였고, 이재희 집행위원장님께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하신분들의 소개에 이어서 파주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상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파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 동안 지역 시민사회연대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긍정적, 부정적 상황들을 정리하고 2019년 다시 발족했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시민사회 연대활동 재정립 및 안정화를 중점과제로 활동해오고 있고,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참여 단체 활동에 대한 지역 공감대와 연대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역 상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파주시와도 파주 시민사회활동을 공유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간담회도 진행하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정과 사업에 대한 소개가 진행된 후에는 경기도센터에 대한 기대,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과 역할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잘된 일이고, 축하할 일은 틀림없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과 개념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곳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지역의 준비와 사정에 따라 처음 설립취지와 다르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며 이런 지역간담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 같다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파주지역의 현재 어려운 점들도 말씀하시고 대책과 의지도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파주시와 지역시민사회 간담회도 공익활동지원이라는 계기와 목표표로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과 하나

하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만 파주 공익활동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해도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나 단체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파주시민사회단체의 토론 뿐 아니라 파주시, 파주시의회와 함께 하기 위한 활동을 시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들의 단체 상황이 비슷할 것이며,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을 언제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겨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많은 지원을 기대했는데, 예산 등의 상황을 보니 실질적 도움은 아직 어렵겠다는 냉정한 판단도 해주셨습니다. 도리어 파주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숙제가 안겨진 느낌이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단체에 시급히 지원해야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과제와 목표들을 지역과 함께 잘 정리해서 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파주지역에 당장 필요한 것은 전문회계 교육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각 시군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의미 있었다는 총평으로 간담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후 파주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파주지역 스스로의 준비로 진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간담회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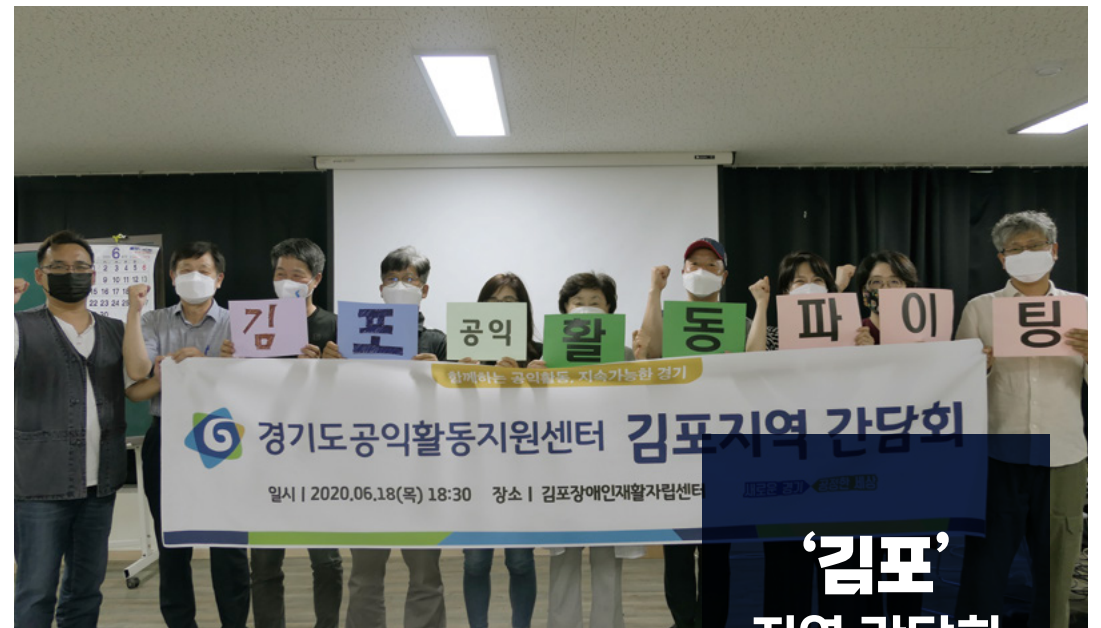
이번 파주간담회는 지역의 공익활동활성화와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많은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되어, 지역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게 되는 간담회였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를 함께 진행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파주지역 공익활동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이후 파주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단체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회계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 주길 바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6]

‘김포’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6. 18(목). 19:00
장 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인원 13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1개 단체

1	전농, 김포농민
2	김포시민네트워크
3	(사)경기민예총 김포지부
4	김포시민
5	분단체험학교
6	김포경실련
7	김포여성의전화
8	김포우체국 집배노조
9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포지회
10	새여울21
1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다

6월 18일(목) 오후 7시, 김포시 공익활동 활성화
를 위한 김포지역 간담회가 김포장애인자립생활
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의 소속단체 15명이 참여 하였으며, 김포경찰
이종준 사무국장님께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여하신분들의 소개가 이어지고, 한 분 한 분 소
개할 때 마다 늦은 시간까지 멀리 김포를 찾아와
간담회를 진행 하는 부분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
씀을 꼭 덧붙여 주셨습니다.

김포지역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역시민단체들의
공동공간에 대한 논의를 해 왔으므로 지역센터
설립에 대해서 실질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 중에는 지역에서 센터가 만들어지려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는 도비로 되어 있
는데 지역 센터는 도비와 시비 등 어떻게 해야 되
는지, 그리고 현재 시 조례로써는 군포시가 선구
적인데 군포시 조례를 중심으로 김포시 조례를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지역센터 설립 시 공익
활동지원의 범위 등 정말 구체적이고 필요한 내
용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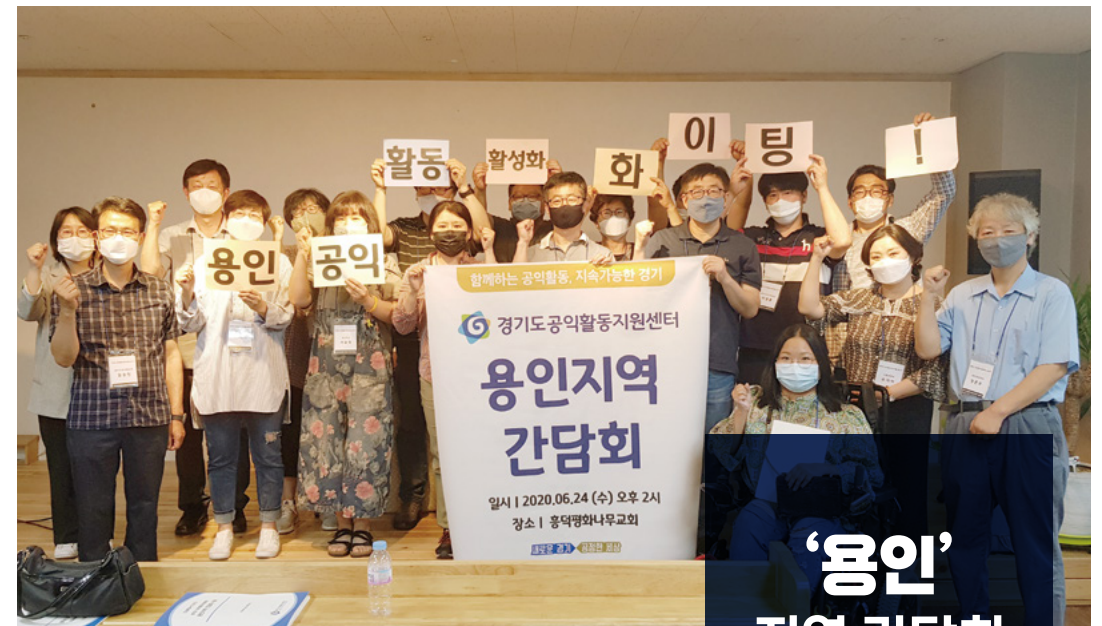
그 동안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근거가 없다는 이
유로 공유공간마련도 쉽사리 추진되지 못했는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시민사회발
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등 여
건의 변화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간담회
가 다시 한 번 지역 센터 설립을 촉진하고 한발
더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김포지역 상황도 공유하면서 앞으로 김포지
역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단기, 장기
계획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간중심이 아닌 센터의 설립 취지와 의
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김포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김포시와 하나 하나 조율
하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
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 설립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
터의 중간지원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셨
으며, 저희 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당
부의 말씀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남아서 하나라도 더 질의하고
얘기를 나누어 주신 김포지역 활동가분들께 감
사 드리고, 그 열기가 더욱 모아져 이후 김포시공
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함께 지원
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각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경기도, 각 시군 행정 등 중간역
할을 꼭 요청함.
- 공모사업 진행시 회계 교육이 필요하
며, 경기도와 시군의 회계 기준을 통
일할 필요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센
터의 역할 기대 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7]

‘용인’
지역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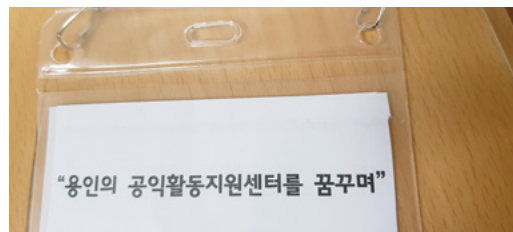
일 시 2020. 06. 24(수). 14:00
장 소 흥덕 평화나무교회
참여인원 21명(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6개 단체

1	흥덕지역아동센터	9	협동조합협의회
2	용인환경정의	10	행복나눔방송국
3	(사)사람과평화	11	용인장애인시민파워
4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12	사회적일자리연구소
5	나무와아저씨	13	(사)여럿이함께
6	용인시협치위원회	14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7	용인심리상담센터	15	행복공작소
8	느티나무도서관	16	용인마녀

용인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법을 고민한 용인지역간담회

6월 24일(수) 오후 2시, 용인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용인지역 간담회가 흥덕평화나무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체 용인시민파워 소속 단체 20여명이 함께 해주셨으며, 용인시민파워 이종환님께서 사회를 맡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분들의 명찰을 직접 만드셨는데 '용인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꿈꾸며'라는 내용을 슬로건처럼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용인지역 분들의 마음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비단 용인만의 고민은 아니겠지만, 청년활동가들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현재 활동가들의 고령화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신진활동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데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중 여성의 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활동가의 활동 지속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참여는 모두의 숙제임을 인지하고,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비와 사무공간, 공동 회의공간, 공유활동 카페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과 공간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한 곳에 있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스며들어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 시 네트워크가 왜 잘 안될까 생각해보면 실무를 할 사람이 없고, 각각의 단체들이 필요성과 당위성은 느끼지만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말씀과 네트워크를 열심히 활동하면 그 일을 고스란히 떠맡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열심히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해결(지원)해주면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겠고, 시민사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중 활동가들의 모임지원, 활동가 1년차, 3년차 등 다양하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지원의 내용을 제안해 주셨고, 연구사업도 있는데 활동가들은 자기 개발 욕구가 크니 개인 연구나 팀 연구 공모사업을 한다면 다양한 주제로 지역의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발굴과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고, 네트워크 연결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용인시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TF팀)가 꾸려졌습니다.

용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활동에 선뜻 뜻을 같이 해주신 TF팀 활동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발굴과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고, 네트워크 연결 역할을 요청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8]

‘연천’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7. 03(금). 16:00
장 소 행복뜰상담소
참여인원 13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군민)
참여단체 9개 단체

1	연천여성연대
2	연천행복뜰상담소
3	연천가정폭력상담소
4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5	연천귀촌귀농회, 효연재
6	전교조 연천지회
7	연천문화플랫폼
8	겨레사랑연천군민연대
9	군민



연천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대의 첫발을 내딛다

7월 3일(금) 오후 4시, 연천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천지역 간담회가 연천행복뜰상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연천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12분이 함께 해주셨으며, 연천여성연대 박양희 대표님께서 사회를 맡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개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 추진과정과 운영현황 및 사업소개 설명시간에는 다들 눈은 말뚝말뚝, 귀는 쫓긋 세우며 너무도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연천 활동가분들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넘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천지역도 활동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회의실, 사무, 회계, 상근직원과 사무공간의 부족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공모사업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시 서류작업이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 필요한 사업이라도 진행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각자 단체들 활동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고 연천은 지역의 시민사회조직의 현황파악도 제대로 공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천지역의 공익활동단체들이 모여 지역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간담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향후에 연천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모두 공감하셨습니다.



지금껏 연대체가 없었으므로 연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먼저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할 사람 발굴이 먼저 필요하고 인력 지원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협치의 가치는 증대되고 있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클 수도 있겠고, 연천지역은 시민사회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지역의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같이 고민해 주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지역간담회를 통해 센터 설립의 취지를 설명 듣고, 연천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익단체들이 모이는 자리도 생겨 이후 연천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힘 모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

겠다는 기대도 살짝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공익활동활성화 공모사업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전해주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센터 등 어떤 지원조직도 없는 연천 군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 더 좋은 일일 것이라고 하시며, 이 자리를 계기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지는 것 같이라며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전체 토론을 마무리 지으시며 차기 회의 일정을 잡고, 이후 함께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추후 모임을 확대하자고 힘을 모아서 파이팅 해 주셨습니다.

각 단체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함께 참여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도 함께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대부분 각 단체 상근활동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모사업 등 정산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서류간소화를 요청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19]

‘양평’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7. 13(월). 14:00
장 소 양평 풀뿌리밥상
참여인원 11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9개 단체

1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양평지역노조연대
3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4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5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6	풀뿌리협동조합
7	우리지역연구소
8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9	양평한살림



지역 공익활동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확인한 양평지역간담회

7월 13일(월) 오후 2시, 양평군 공익활동 활성화
를 위한 양평지역 간담회가 풀뿌리협동조합인 풀
뿌리밥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양평시민단체연대회의]로 모인
양평지역 장애인, 노동, 에너지, 문화, 경제, 교육,
먹거리, 환경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
11분의 활동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현정 사무국장님께
서 진행을 맡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개
와 지역현황 설명으로 첫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 민관협치과 팀장님과 함께 참석해
참가자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즉문즉설로 민관협
력방안과 해법도 제안해 주어 더욱 활기찬 간담
회가 되었습니다.

양평군에도 소통협력담당관이 작년에 신설되었으
며, 작년 3월에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여 민관협
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도 하고, 협의회도 구성
하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소통 및 협치 체계의 안정
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그리고 사회 전체의 공익
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울
해 시민연대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모임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 단체별로 사업을 수행하기
도 어려운 상황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양평지역에서 공익활동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열
망과 필요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만, 상근활동가 2명 이상인 단체는 양평경찰서뿐
이고 그 외 단체들은 상근체계 마련이 어려운 실
정이라는 지역 현황, 인력과 공간의 확보가 간절



하지만 지역에서 공론화를 하고 요구를 한다하
더라도 양평군에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일 것 같
지 않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그 동안 경기도 및
군포 조례를 참조하여 [양평군공익활동촉진조례
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필요한 내
용을 자문 받아 양평군수와 면담을 추진 할 예정
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 및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
해 한발씩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양평지역 인구는 12만인데 타 지역130만 지역
과 똑같이 회원 100명을 모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 조건은 불합리한 것으로 이런 법·
제도 문제의 해결방법과 지역에서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협치의 파트너로 각종 현안에 대응하면서 시민사
회단체들이 민관이 같이하는 일들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시민사회가 전문성도 확보하
고 활동영역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 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간담회 일정이
끝난 후 바로 5시부터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논
의 결과는 센터와 공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양평간담회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
히 활동하고 있다는 희망을 확인한 뜻깊은 간담
회였습니다.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활동과 발전을 응
원하며, 함께해 민관협력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관협치과 팀장님과 담당주무관님께도 감사드
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양평지역 공익
활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려면 상근자 확보가 중요함.
-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
- 전문적인 회계프로그램 서비스가 필
요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0]

‘동두천’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7. 17(금). 11:00
장 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참여인원 10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7개 단체

1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5	동두천나눔의집
2	라파엘클리닉	6	동두천환경거버넌스
3	경기북부이주민센터	7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4	동두천카톨릭센터		



지역 공익활동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으로 날개 짓을 시작 하는 동두천 지역간담회

7월 17일(금) 오전 11시, 동두천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사무국장님의 여는 인사를 시작으로 참석해주신 10분들의 소속단체 활동소개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동두천지역은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도시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었고 동두천지역이 동두천시가 된 것도 미군기지가 있어서이고, 올해 효순미선평화공원이 조성되는 등 근현대사를 오롯이 살아낸 지역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지역 상황을 대변하듯 평화운동, 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체 중에는 라파엘클리닉이라는 생소한 단체도 있었습니다. 라파엘클리닉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상사업은 지원을 못 받고 회비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외국유학생 등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동두천 분소에는 일요일만 내려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는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어렵고 여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의사, 간호사 분들은 서울에서 오시는 데 사정이 생겨 못 오시는 날은 진료가 어려워 동두천분소가 계속 유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어려움을 전달해 주셔서 지역단체에서도 함께 고민하여 방안을 찾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동두천지역은 지역 시민사회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1992년 동두천시민회가 결성되어 시민활동이 있었지만, 2012년에 해산된 후 장기간 지역 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상황을 공유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교류가 정체되어 있었던 시간이 길었으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아직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지역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조금씩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2017년 만들어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어 이제 서로 얼굴 익히고 알아가는 중이라며 희망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단체 성격이 제 각 각으로 개별 단체 활동을 하느라 연대 할 기회가 없어, 동두천 지역 공동의



상황을 공익활동센터와 함께 활동가들이 주도해서 사회인식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활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어떻게 모아내야 할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회계 부분에 대한 지원은 먼저 기준 등을 제시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청년활동가 당사자 입장에서 주신 의견으로 [청년활동가들의 임금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가족들과 지인들은 단체 활동 하지 말라고 말린다. 예전처럼 데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일하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며 가족들은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한다. 주위에 청년활동가도 몇 명이 있는데 생활임금정도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서로 바람을 얘기한다.] 라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청년활동가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모두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꼭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 등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빠져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면서 사업과 단체 활동을 활동가들이 이끌어가므로 인건비가 중요하며, 왜 인건비가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적극 제안 하셨습니다. 현재 인건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단체 활동가끼리만 아니까 그 동안 인식 변화가 없는 거 같다면 이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청년활동가의 현실적인 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청함
- 모든 공모사업 등 사업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함
- 단체에 맞는 회계 기준 제안과 지원이 필요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1]

‘고양’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7. 21(화). 18:30
장 소 노동권익센터
참여인원 11명(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0개 단체

1	고양시민회
2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3	경기장애인인권포럼
4	고양여성민우회
5	아시아의 친구들
6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7	고양환경운동연합
8	고양평화청년회
9	놀이하는사람들
10	고양시 공무원노조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요청하다

7월 21일(화) 오후 6시 30분, 고양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민회 최태봉 대표님의 여는 인사로 각 단체와 경기도의회 의원 등 열 한분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고양에서도 어김없이 흘러나왔는데요 공익활동 분야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보니 담당 주무관마다 마인드에 따라 관점이 극히 개인적이라 요구하는 서류도 제각각이어서 회계부분이 정말 어렵다고 하시며, 전문 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성토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운동이 헌법적인 기반을 갖고 움직이는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시행령 등 하위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측이 우세한 경우가 많아 갈등이 있으며,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제한 규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례,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금껏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사례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날 모이신 여러 단체의 활동가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바로 이어서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내부 일정이 있어 [고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논의 등

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추후 지역 논의와 다른 지역관련 궁금한 사항 등은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로 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활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회계부분 지원을 요청함
- 지역 공익활동의 한계를 느낄 때 광역지원센터에서 지지해주시기를 요청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2]

‘화성’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7. 22(수). 16:00
장 소 그물코평화연구소
참여인원 10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8개 단체

1	화성시민신문
2	(사)더큰이웃아시아
3	화성YMCA
4	화성아이쿱생협
5	한살림 경기서남부
6	화성환경운동연합
7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8	그물코평화연구소



‘활동가 지원=건강한 시민사회단체=건강한 시민사회’라는 공식 제기

7월 22일(수) 오후 4시, 화성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화성지역 간담회가 그물코평화연구소에서 8개 단체 열 분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대 단체들의 역할은 선도, 홍보, 계몽이 주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분야별 규모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소모임, 자기 생활권, 지역중심으로 환경교육, 마을 등 여러 작은 모임들로 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지원체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말씀하시며, 화성의 경우에도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법적체계를 갖추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행정의 수탁이나 공모 등 지원을 받으려면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의 법적체계가 있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깊숙이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단체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화성시장과의 간담회 시 활동가 실무자, 실무행정, 상근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없으면 공무원이 직접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그 업무 때문에 관련 공무원을 늘릴게 아니라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고, 그만큼 시민사회단체가 중요하고 단체의 존재는 활동가의 존재로 연결된다고 하시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건강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들의 지원정책은 많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정책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거의 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근자의 어려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요한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 자원봉사의 수준이 아닌 직업의 개념으로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가 안정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하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과 장벽이 존재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지원센터였으면 좋겠고, 센터는 공동의 공간, 우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우리의 일꾼 역할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추후 8월 정기회의시 공익활동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시는 화성지역 공익활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상근자=근로자라는 직업의 개념으로 상근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 건강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직결되는 문제, 풀뿌리단체들 지원을 요청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3]

‘구리’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7. 23(목). 16:00
장 소 카페 더숲
참여인원 9명(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5개 단체

1	구리남양주시민연대	4	다같이사회적협동조합
2	애기똥풀도서관	5	구리남양주416약속지킴이
3	구리YMCA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7월 23일(목) 오후 4시, 구리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리지역 간담회가 카페 더숲에서 5개 단체 아홉 분이 참여한 가운데 구리남양주시민연대 이주연 사무국장님의 진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2017년도에 “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져 소관부서가 없고, 예산도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을 의회와 상의해서 다듬고,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적으로 상황이 다른데 구리시 시민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100명의 회원수 조건은 구성하기 힘든 점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리시민사회는 민간 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지만 임시적인 네트워크로 지속가능성이 없고 활동 공간, 실무자, 사업할 수 있는 예산 등을 생각하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공익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하면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활동가의 인건비 지원이 과제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내면 인건비 지원 등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보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또 하나의 과제라 회의감이 들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재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리시장이 공공기관 주말 대관을 지시해서 몇 번 시도하더니 흐지부지 된 상태로 시장과 공무원과의 엇박자, 대관의 운영체계나 방식도 달라져야 하며, 공무원의 관리 한계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공간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NPO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할 것이며, 예산을 확보하여 공간

문제, 활동가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희망하니 이런 방향과 내용을 갖고 출발한다면 자발성, 창조성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공익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으로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며, 구리는 마을공동체센터는 없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있지만 민간이 하는 공익활동을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고, 민간사회영역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기반이 있어 구리시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 공익활동지원이 각각의 센터 설립보다는 통합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추후 더 많은 단체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하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설명과 프로세스를 갖고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강연을 진행하여 확대 모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단체를 발굴하여 확대회의를 진행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리남양주시민연대 사무국장님이 수고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구리지역 공익활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공간의 문제 등 NPO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함.
- 공간문제, 활동가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희망함.
-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확대로 공익활동 지원이 가능한 열린 구리시정이 필요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4]

일 시 2020. 07. 28(화). 14:00
장 소 고운최치원도서관
참여인원 19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3개 단체

1	시소리	8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2	하남공정무역협의회	9	하남소비자지킴이
3	하남여성회	10	하남YWCA
4	하남민예총	11	글로벌다문화센터
5	하남YMCA	12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6	하남진도코치단	13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7	경기하남패트롤맘지회		

공익활동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



7월 28일(화) 오후 7시, 하남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가 고운최치원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19명이 참여하여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하남YMCA 이용원 총장께서 진행을 맡아 간담회 참석자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센터 및 사업소개 후 경기도와 하남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제안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남시는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공정무역 등 각 분야의 단체가 모여 어린이날 행사 개최 등 지역 활동을 위한 공익활동 네트워크 협력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날 간담회에서는 체계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준비위원회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지역 참여 단체의 확대, 시의회와의 조례 제정 논의를 목표로 하고 8월 18일에 조직 확대를 위한 후속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공익활동의 어려운 점으로 공간, 회계, 인력문제 등 단체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스스로의 지원 체계 구축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역 활동가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은 행정의 의지도 중요하며, 하남시에 아직 행정과 시민사회 간 소통을 위한 조직이 없어 행정의 협치 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조례 제정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의 소통을 위해 이 날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민관협력팀 담당 주무관에게는 하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민사회 담당 부서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협조를 약속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행정과의 소통과 협의를 위한 통로를 선정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 타 기관 사례를 통해 공익활동 지원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질 경우 행정 중심 지원 체계로 운영되어 공익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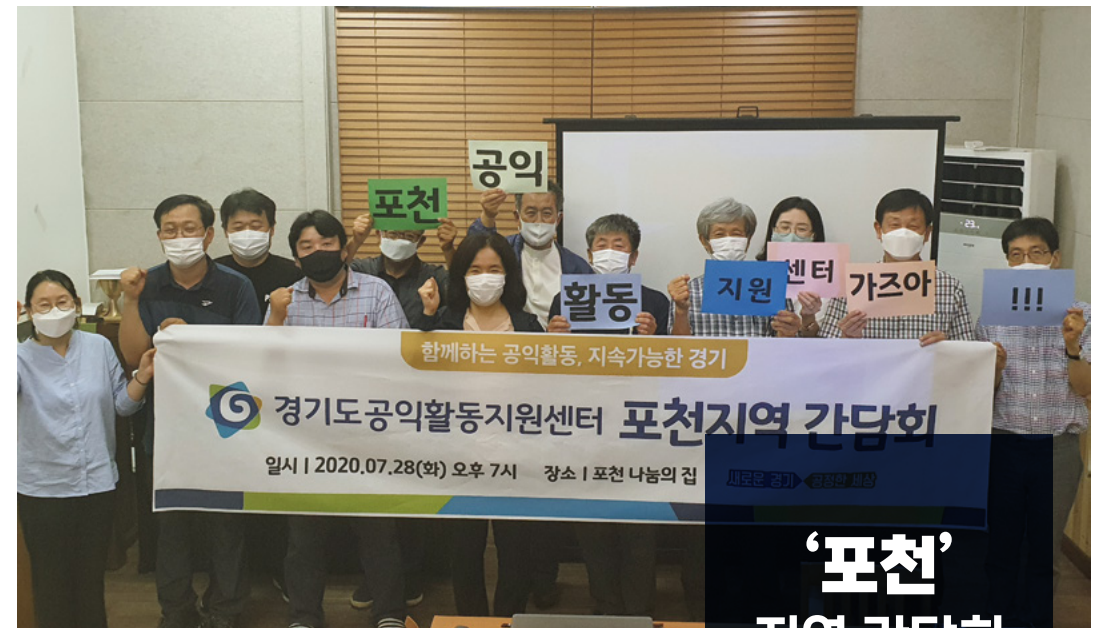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 제안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공간, 회계, 인력 등 단체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 지역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공익활동 활성화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을 위한 제안을 하고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하남 지역 활동가분들과 경기도 민관협치과 주무관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활동가 지원 등 활동가 관리 역할
- 단체 특성에 맞는 회계 지원
- 공간, 회계, 인력문제 해결 및 활동가 역량강화 등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5]

‘포천’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7. 28(화). 19:00
장 소 포천 나눔의집
참여인원 11명(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5개 단체

1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4	차의과학대학교 사회공헌센터
2	포천나눔의집	5	협동조합 공존
3	연천여성연대		



포천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향한 기대와 희망



7월 28일(화) 오후7시, 포천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담회가 포천나눔의집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늦은 시간이지만 포천지역의 공익활동가 11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서희선 이사님께서 진행을 맡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개와 지역현황 설명으로 첫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장소를 마련해주신 포천나눔의 집 오상운 대표(신부)님께서 포천지역을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포천지역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진솔한 간담회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취지와 현재 진행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친 후 여러 질의 응답을

나누었습니다. 포천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경기도 시군공익활동촉진장려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원받으면 지역에서 조례제정까지는 꼭 추진해야 하는지 등 포천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포천지역은 도시재생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모두 포천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대부분 직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타 지역의 여러 사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민관위탁을 받는 것이 다 좋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민관위탁의 문제점으로 센터장과 직원 등 활동가들이 지역 공론화 또는 협의 없이 일방적이거나 정략적으로 채용되는 경우,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센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역 공익활동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간절하지만, 이번 간담회에 모인 우리들이 지역사회를 설득하려 해도 지역에서 목살하거나 여론몰이를 통해 지역 공론화가 어려운 상황이 현재 포천의 구조이며, 이런 구조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 해줘야 한다고 지역의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공익활동센터에서 지역활동가들의 프로그램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포천지역은 포천시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부딪쳐서 해결해야 하고 이 문제에 다 같이 힘합쳐 해결방안을 찾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중에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에 현수막을 붙이는 것 정도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전혀 없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중간지원조직 해 주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된 기회가 되었으며,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공유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제안도 해주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마치고 참여한 활동가들과 함께 협치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조례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와도 함께 공동포럼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뜻을 모아 주셔서 간담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시는 활동가분들과 경기도 공무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지역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정보공유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공유공간 마련
-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중간역할이 필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6]

‘남양주’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07. 29(수). 16:00
장 소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참여인원 15명(시의회, 시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2개 단체

1	에너지솔루션	7	대한민국 행복한 동행
2	남양주시햇빛발전협동조합	8	남양주시청소년플래시몹봉사단
3	우리누리사회적협동조합	9	뜨레팜농군 꿈의학교
4	선한이웃 남양주	10	영농조합법인어깨동무
5	남양주YMCA	11	흥나라드림세상
6	코스모스한울타리봉사단	12	시민

남양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힘찬 출발을 결의하다



7월 29일(수) 오후 4시, 남양주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지역 간담회는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처음으로 달남과꽃남이라는 야외 조각공원에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장마의 영향으로 긴급하게 당일 실내장소로 변경하게 되어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남양주지역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활동가 15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상열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맡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개와 지역현황 설명으로 첫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경기도 민관협치과 팀장님도 함께 참석하시어 남양주시의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과 여러 의견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욱 활기찬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남양주지역은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남양주 공익활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간담회에서 깊은 논의가 되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양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도 만들고 센터가 만들어지려면 모임을 정례화를 하고 앞으로 행정과 함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모아졌습니다.

경기도의 행정특성상 정책을 실행하면 중간지원조직이 31개시군구에 모두 있어야 원활한 행정처리가 될 것이며, 없다면 실질적인 일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현재도 지역별로 사회적 협동조합, 민주시민교육 등 통합지원으로 각 중간지원이 31개시군구에 지자체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중에서는 [유공자 환경연대라는 좋은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50대 중반인 내가 제일 막내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연배도 비슷한 거 같다고 생각된다. 지역에서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함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참여하신분 중에는 어르신들 목욕, 이발, 호스피스 병동을 개별 방문을 통해 위로도 하는 순수 봉사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며 지금은 코로나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번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미용사들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5명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교육도 결국 우리의 세금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공익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활동가들의 한 자리에 만나고 또 각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뜻은 다 함께 모여서 연대회의를 구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과 남양주공익활동가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가칭이지만 출범을 결의하고 다지는 간담회로 잘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남양주공익활동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출범을 준비하는 출범준비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장과 총무를 선출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출범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 참여한 남양주 활동가분들과 뜻깊은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활동가분들과 경기도 공무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상근자 확보가 필수조건임.
-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활동가들의 참여를 높여야 함.
- 지역의 열악한 단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요청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7]

‘여주’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8. 12(수). 10:00
장 소 여주문화원
참여인원 28명(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2개 단체

1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7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
2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8	여강길
3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여주시협의회	9	한강지킴이운동본부
4	여주시농민회	10	여주친환경출하회
5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11	강천면 주민자치위원회
6	여주민예총	12	금사면 생활개선회

공익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여주지역간담회



8월 12일(수) 오전 10시, 여주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여주문화원에서 12개 단체 스물여덟 분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민혁 사무국장님의 진행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여주지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올해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과 통합센터운영에 대해 여주시장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초기 단계에서 변화에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주지역 간담회는 무엇이 공익활동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활동 시 비용발생을 자부담, 회비, 후원금 등으로 매번 진행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지만, 공익활동의 비용발생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해결해줘야 하는지도 모호하여 해결방안이 항상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강지킴이운동본부는 환경 정화활동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지만 식대정산에 대해 활동가들이 인적사항, 서명부 등의 서류제출과 회계정산 등의 일처리가 많아지면 일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좋은 일하고 정부의 돈을 억지로 받는 느낌을 갖게 되니 이런 상황은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로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 담당부서에 건의하여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서비스, 정부의 일을 비판·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했을 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선정

해줄 수 있는지, 많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주지역에서 단체별 특성이 있어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혹 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공모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단체별 특성과 고유의 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날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여주지역 공익활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주의 공익활동에 아낌없는 박수와 아울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회계정산의 간소화
-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부담의 비용 해결에 대한 문제
- 비영리단체의 비판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대함
- 인력지원의 경우 한시적, 단기적이라 경험을 쌓을 수 없으니 지속적인 인력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되기를 바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8]

‘과천’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8. 12(수). 19:00
장 소 순가락협동조합
참여인원 14명(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0개 단체

1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6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2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7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3	맑은샘학교	8	숲드레생태연구소
4	작은곰자리(퍼포먼스그룹)	9	순가락협동조합
5	과천활동가네트워크	10	과천시민정치

하나의 연대로 큰 축을 이루어 다 같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만들어가자



8월 12일(수) 오후 7시, 과천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순가락협동조합에서 활동가 14명과 진행하였으며, 과천활동가네트워크 안수정님이 진행을 맡아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로 시작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날 간담회는 제갈임주 과천시시장님도 함께 참석해 시의회 의장로서 과천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에 활동가들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과천지역은 90년대 신도시 형성기에는 과천시민모임 등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활발했지만 인구가 적고, 큰 도시들 사이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생기기 어려웠으며, 현재 최근 다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는 지역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천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공익활동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안교육이며, 또 하나는 공동체활동이며, 조합원 대부분이 학부모와 겹쳐 대안학교 운영에 집중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준비를 해 왔으며, 올해 10월에는 모두 설립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작은도시라 또 하나의 별도의 센터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활동들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센터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단체가 드문 과천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현재 지역 내 단체 수는 많은데 활동가들은 중복되어 있으며, 하나의 큰 나무가 아니라 대나무가 여러 개 있는 거 같고 개별 단체들이 연합해야 하는데 현재 네트워크 구성이 단단하지 않음을 짚어주셨습니다. 지역이슈에 따라 활동가들이 모여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체 개수만 많은 것이 현실이라 다 같이 하나로 연합하여 큰 축이 된다면 개별로 움직이는 커뮤니티 그룹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이번 간담회가 이런 네트워크 구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활동가 한분은 ‘모든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상근활동가가 필요하며, 활동경험이 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사안에 따라 연대활동을 하지만 활동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상근활동가의 부재라고 보여진다. 그 동안 삶과 활동이 함께 되면서 단체 활동이 유지가 되었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가들은 삶과 활동이 그만큼 긴밀하지 않기에 활동력이 분산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별도의 센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센터가 통합된다면 통합센터 내 전담활동가 인원이 포함되어 꼭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실질적인 당부의 말씀도 남겨 주셨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늦은 오후 7시에 시작하여 많은 질문과 의견들로 2시간을 훌쩍 넘겨 10시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여하신분들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은지 실감하였으며, 안수정님은 직접 자료까지 준비하셔서 과천지역의 그동안 활동의 흐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주신 공익활동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과천지역의 공익활동에 많은 지지와 아울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단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회계 교육
- 통합센터 설립시 단체 전담활동가 배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순회간담회 29]

‘양주’ 지역 간담회

일 시 2020. 10. 20(화). 10:30
장 소 카페 All is well
참여인원 12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9개 단체

1	양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2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탐
3	한국구명구급협회 양주시지부
4	코람센오센터
5	더드림행복지원센터
6	양주시YMCA
7	차민연합회
8	제이토브 뜨개공동체
9	아이랑어린이집



네트워크의 힘과 중요성을 확인하다



10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양주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공정무역카페에서 아홉 개 단체 열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속의 대사이기도 한 “All is well” 마차 공익활동에 힘써주시는 활동가분들의 노고에 인사라도 하듯 카페명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양주간담회는 8월 여름에 추진하려고 일정과 장소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지만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보류상태였다가 두 달 만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활동가분들의 소개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추진 과정, 설립의 필요성, 센터 사업들 소개로 시작하였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주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주민의 유입으로 변화와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이해와 네트워크 부족, 지역 시민단체도 거의 없으며, 생겨도 1년을 버티지 못하는 실정인데 몇 년 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생기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활동이 생겨나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슷한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더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양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 내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같이 있고, 직원들만 채용한 방식이어서 만약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생기면 별도의 건물로 설립하거나, 장소와 명칭의 통합, 행정과의 논의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도 하셨습니다.

이 고민들을 풀기 위해 각 시군에 생긴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개별적으로 재량

껏 운영하는 것인지, 지자체와 협치를 해야 하는지, 경기도와 공동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의 궁금함을 질문하셨습니다.

또 지역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자유로운 공간활용,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는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며 관심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 활동가들이 여러 활동을 하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새로운 활동가의 활동이 절실한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활동가가 발굴되면 좋겠고, 추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센터설립 과정을 경기센터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인지하고 근거와 선례로 행정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단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네트워크의 힘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시의원도 함께 참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쉽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핵심활동가분들이 모이셨으니 하나의 목적을 갖고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바로 양주YMCA 최근혁 총장님이 네트워크

연락책을 맡아주시기를 모두 원하셨고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지역의 공익활동을 위해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문의하셔서 비록 공모사업의 지원금은 모두 소진이 되었지만 양주의 의지를 받아 고민해보고 좋은 결과를 드리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양주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처음 모였고,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돕는 것이 간담회의 취지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주의 공익활동에 힘찬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All is well”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양주지역 공익활동가분들과 간담회 추진에 도움주신 양주YMCA 최근혁 총장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주의 공익활동에 아낌없는 박수와 아울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지역의 공익활동 사례, 제안사항 등을 센터에서 취합해서 반영한 사업을 펼쳤으면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피드백이나 컨설팅 지원을 요청함.

“
2021년
간담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시·군 간 소통채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1]

‘광명’ 지역 간담회

일 시 2021. 4. 26(월) 14:00
장 소 광명시 평생학습원
참여인원 13명(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7개 단체

1	광명경찰서
2	광명YWCA
3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
4	광명여성의전화
5	광명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6	좋은친구들
7	광명YMCA



‘show me the 공익’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21년 올해 첫 간담회는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광명은 작년에 이어 센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도 신청하여 올해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0년 5월 26일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고, 2021년 1월 국무총리실은 지자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진하고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배포하였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조

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광명은 2020년에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차례 논의 테이블을 진행한 결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해는 민관 협치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사전점검의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 센터장은 표준조례의 주요내용과 꼭 담겨야 할 핵심내용, 조례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의 타 지역 상황, 2021년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과 추가 신청 가능성 등의 상황을 공유하였고, 2021년 센터의 주요사업을 설명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센터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궁금한 사항 질문이 많았고, **공모사업의 서**

류가 과다하니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광역센터가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주기를 요청한다며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광명시 관계자분들도 같이 참석해주셔서 행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바로 궁금증 해결이 가능한 시원한 자리였으며, 표준조례는 광역단위 기준에 가까워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촉진위가 표준조례를 토대로 지자체에 어떻게 권고할 것인가와 기초에서도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 만큼 광역센터와 기초센터의 역할 분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 이후 바로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공익활동 촉진사업에 돌입하는 광명은 웹자보를 제작하여 단독방에 홍보하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등의 단체뿐 아니라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명균 센터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인 조례가 제정되면 이 후 작업들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으니 TF팀 구성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추진과정을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광역센터 또한 경기도 2,500여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이 우선과제이고, 파악한 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의 연구 계획과 경기북부지역 센터 설립, 광역과 기초의 관계 정립,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등을 고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각 단체들의 개별사업이 시작되는 바쁜 시기에 지역 공동의 의제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광명지역 공익활동가분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신 박문경 총장, 광명시 자치분권과 박은호 민관협치조정관, 박진숙 시민협치팀장, 김지훈 부팀장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광명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2]

‘광주’ 지역 간담회

일 시 2021. 05. 17(월) 16:00
장 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인원 9명(시의회, 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6개 단체

1	씨알여성회
2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광주 학부모회
3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4	전국교직원연합하남광주지회
5	경기광주휠링협동조합
6	경기광주교육포럼



광주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꿈꾸며!!!



회사를 운영하는 곳은 새해 첫 업무 시작 일에 시무식을 하듯이 광주는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1월 4일에 제정 하였습니다. 마치 조례로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센터가 조례 내용을 알려드리고, 지역상황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지역 연대체에서 논의 후 확정된 일정이 바로 5월 17일(월) 오후 광주시의회, 행정,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안명균 경기도센터장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사회적 변화 흐름, 경기도 31개 시·군 중 조례 제정과 센터설립 등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 동안의 지역별 움직임과 변화, 경기도의 센터설립 지원 등 전반적인 사례를 공유 하였고, 광주 조례를 발의하였던 광주시의회 박

현철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시는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자원봉사센터는 그 역할이 있고, 임의단체나 마을의 자생적인 주민단체 등의 공익활동 시 광주시가 공익활동을 복돋아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덧붙여 어느 지역이든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광주는 공간에 대해 패쇄적이라 장소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조례(제도)와 센터를 만들어-물론 운영주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분명히 차

이점이 있고, 위원회에서 역할에 대한 고민, 자원 봉사에서 놓치고 있는 다양한 공익활동의 고민과 공익활동 지원 의무가 있으니 그런 정립을 해나가면 충분히 광주시민의 모범사례가 나올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현상황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구성이 막바지 단계이고, **광주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각 분야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다 끌어낼 것**이라는 행정의 설명과 시의원님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구성된 위원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켜서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 의견들을 보탬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시의원과 행정에서도 과정에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 같이 할 사항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명균센터장은 몇몇 지역의 사례를 들며 기본원칙은 최대한의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에 맞는 사업, 운영방식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민관합동 간담회는 진지함 속에서 중간 중간 웃음도 흘러나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현재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날, 광주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간담회 시 행정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고 했었는데 시민사회단체 중 한 분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연대체에서 류복연소장님을 추천하여 추천서 작성중으로 접수예정입니다.

앞으로 류소장님의 민관협치 가교역할과 함께여는 광주연대(연대체명)로 인한 광주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간담회를 추진하는데 저희 센터와 협력해주신 최윤행 대표님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함께여는 광주연대 활동가분들, 행정의 추진상황 등 많은 이야기 같이 나눠주신 강민수 자치행정과장님, 이날처럼 민관이 협력하여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의 장이 지속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주 간담회는 저희 센터가 더욱 더 힘을 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정체되어있던 지역에 센터가 지역상황을 공유하고, 한 번 더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권유,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나눔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무엇보다 이 자리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가 공익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익활동에 대한 의미와 이해로 많은 힘 써주신 박현철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3]

일 시 2021. 05. 20(목). 18:30
장 소 포천 나눔의 집
참여인원 9명(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5개 단체

1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4	삼팔옴파로 작가회
2	협동조합 공존	5	포천 나눔의집
3	양문을 여는 사람들		



포천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하여!!!



오늘 간담회 장소는 포천이었습니다.~
퇴근시간이 아닌데도 정체가 계속되어 마음은 조
마조마^^ 엄청 먼 거리였습니다.
아~~~ 북부센터의 개소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
었습니다.

우선 포천의 조례를 발의하신 박혜옥 시의원님의
센터설립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질의를 안명균
경기도센터장의 답변으로 짧고 핵심있는 이야기
들이 오갔고 그 외 준비사항은 오늘 모이신 단체
활동가분들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하였습니다.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의 서희선 사무국
장의 진행으로 모이신 단체분들의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였습니다.

포천지역의 고민을 듣기 전 센터장은 시민사회활
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적 변화, 경기

도 지역별 추진상황에 대한 사례 등을 공유하면
서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끔 하려면 행정, 시장, 시민사회 세 주체
가 제대로 굴러가야 하는 것**이지만 시민사회를
이야기할 때 지원은 거의 없어 공익활동을 지원
하는 센터와 공익활동 지원계획, 공익활동촉진위
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조례내용에 담겨져
있으니 지역에서 모양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 센
터만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
의 공익활동을 증진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지고 지속가
능성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센터 **설립 후 역할과
사업의 방향성이 중심이 되어 단체 활동가분들끼
리 논의하여 지역에서 풀어가야 할 고민이지만
확실한 목표를 세운 후 구체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나간다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였으며, 포
천은 김포, 양주시와 같이 아파트 등으로 새롭게



유입된 주민들과 어떻게 지역사회의 고민을 풀어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하였습니다.

포천은 2020년에 시·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으로 작년에는 준비단계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단계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큰 울타리를 만들어놓고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단체발굴의 필요성과 추진위를 구성하여 간담회 조직 발굴, 역할,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으로 풀어내 보자는 의견들이었고, 단지 센터 설립만이 아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핵심단위를 꾸려서 추진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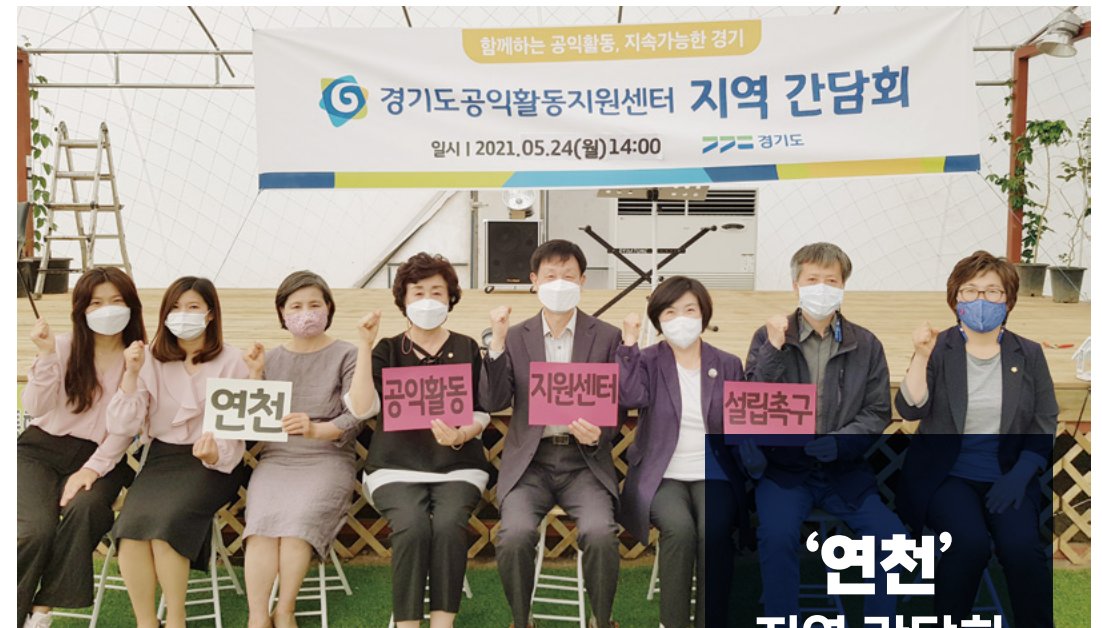
시급한 것은 지금 이 모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활동가들의 비용 지원이 없으면 누가 와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포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5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포천시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간담회 진행에 협력해주신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서희선 사무국장님과 바쁘신 일정 쪼개어 퇴근 후 마음을 모아주신 활동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포천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하여 파이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4]

‘연천’ 지역 간담회

일시	2021. 05. 24(월). 14:00
장소	카페 블라
참여인원	12명(군의회, 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8개 단체

1	연천행복돌상담소
2	연천여성연대
3	연천가정폭력상담소
4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5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연천지회
6	임진여울
7	나눔을위한채움
8	반딧불이의꿈



연천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



연천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간담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활동가분들과 처음 만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및 지역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간담회에서는 연천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모아내고 다지는 시간이었으며, 간담회 이후 활동가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셨는데요.

그 동안 단체별로 활동하며 큰 틀에서 연대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연천시민단체연대회의**를 구성 및 발족하였으며, **연천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천지역 간담회도 기대가 큼니다.

박양희 연천여성연대 대표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간담회는 군의원 분들과 연천군청에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더욱 구체적인 사안들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서회정의원은 연천군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먼저 조례 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로 꼭 필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이번 간담회 주요 의견과 질문도 조례 내용 검토 및 조례제정 이후 추진 단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동안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과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 활동이 제대로 반영되고 활성화 되려면 조례와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의무사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천지역도 행정에서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함께 조례 등 제도화를 이끌어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천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단체 사무실 공간과 상설인력이 제일 절실**하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한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큰 공간을 마련하여 단체 별 사무실을 하나씩 분양 해주고, 전체 공간중에 큰 회의공간을 마련하자 그리고 한 사람 인력을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연천지역에도 현재 센터가 많은 편이다. 근데 지역에서 또 공익활동지원센터만 별도 설립한다고 하면 연천지역에서는 낭비일 수 있다 군포는 군포조례를 보면 군포가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센터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연천지역도 지역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공간이 없어서 청년단체 사무실 빌려쓰고, 지역 매립장 반대 운동 할때도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했다. 시민단체는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시민단체의 지원과 군민들을 위해 센터 설립 후 직원 1명이라도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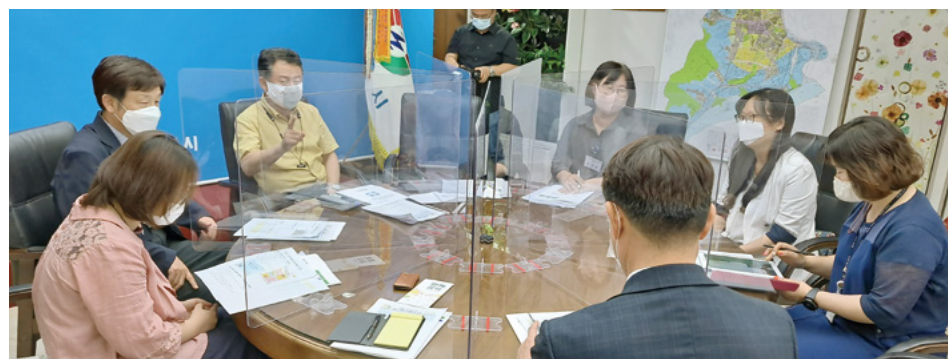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5]

일 시 2021. 06. 30(수). 13:00
장 소 구리시청 3층 민원상담관실
참여인원 9명(구리시장 및 행정,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포함)
참여단체 3개 단체

1	구리남양주시민연대	3	구리YMCA
2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		



구리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익활동!!!

구리시는 2020년 간담회 이후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5 곳에 선정되어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경기도센터와 소통하는 과정 중 **민관의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로 간담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 마련을 요청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명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의 시민 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변화와 6월 23일 경기도 근거조례 전면 개정(현재 미공포) 등 경기도 상황을 공유하였고, 구리시는 9월 센터 오픈을 계획으로 센터 예정지 방문, 군포센터와 구로구 센터 방문 등 그간의 진행상황을 공유, 8월에 입주 준비 계획으로 추후 진행과정은 시민사회단체와 의논하고 함께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2020년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지역간담회를 추진하였고, 공모사업인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으로 구리시의 공익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제안을 했었고 행정과 시의회와 함께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의 애로사항들은 이해가 가지만 서

로 이해의 결이 달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덧붙여 공공과 공익의 차이에서 지금 행정은 공공의 역할이지만 **공익활동은 지역사회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공공이라는 영역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가야 하는 것인 만큼 중요한 것은 주체가 있어야 하고, 주체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움직임들이 동력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스스로의 역량부족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충분히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서 조금 상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의논 시 공익활동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이지

만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여타의 공간을 효율화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네트워킹의 개념으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과정으로** 다져가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직원을 몇 명 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논의 과정의 구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민과 관이 거버넌스 체계로 궁극적으로는 민의 자발성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안명균 센터장은 ‘협치형 민관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하듯이 시민과의 협력이 필수, 센터를 통해서 지원받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니 민간위탁과 장소 두 가지는 고민이 필요(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구리시 근거 조례에 공익활동촉진위를 구성하게 되어있으니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내년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지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구조로 가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상황을 반영하여 설명하자면 민간위탁은 시민사회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민간위탁 여부보다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정도의 시민사회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어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의 방안으로 역량을 키우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민관이 밀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디자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행정의 입장은 작년 간담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조례 개정할 때부터 같이 의논하여 작업하였고,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 관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 이후에 2단계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 상황으로 지금은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소통을 자주해야 했지만 그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가 수요하는 공간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소통의 구조, 정보공유의 구조, 논의 과정의 구조로 만들어 간다면 분명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그만큼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오늘 이 간담회에 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리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익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6]

일 시 2021. 10. 05(화). 13:30
장 소 하남YWCA
참여인원 10명(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7개 단체

1	하남YMCA
2	시소리
3	하남공정무역협의회
4	하남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5	하남YWCA
6	하남시장애인후원회
7	패트롤맘경기하남지회



다행 하남, 빛나는 하남!!!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센터장의 시민 사회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변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간담회 이후 그 동안의 변화 공유]

- 국무총리실 표준조례 배포
-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
- 기본법안 발의
- 경기도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타 지역 진행상황

[지역 상황]

-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의 간담회 이후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인지하여 작년에 조례 제정을 위하여 추진중이었으나 내용 보완 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 진행으로 바빠서 정체되어있는 상황

- 조례는 우선 제정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추진이 빨리 되었을거라며 아쉽다는 의견 있음
- 단체별로 일이 과다한데 연대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어려움
- 사업의 주체역할을 하는 단체의 힘듦
- 하남은 40여개 단체가 활동하지만 상근자 1명이 대부분이고, 인건비 마련 등의 재정 적인 어려움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메리트 떨어짐

[의견 나눔]

- 하남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활발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단체들의 공익활동이 어떠한 보상도 없고, 현실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상당히 고무적이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음

- 활동가들이 자긍심을 갖고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각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표준조례 배포는 시민사회 활동을 좀 더 강화하고 넓혀나가라는 의미**로 그것을 근거로 시의회 간담회 필요함
- 센터가 생기면 한두 가지 일이 더 늘어난다고 해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활동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임
- 내부의 단결력, 에너지 등을 잘 모아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약하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대세의 흐름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니 모두 힘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함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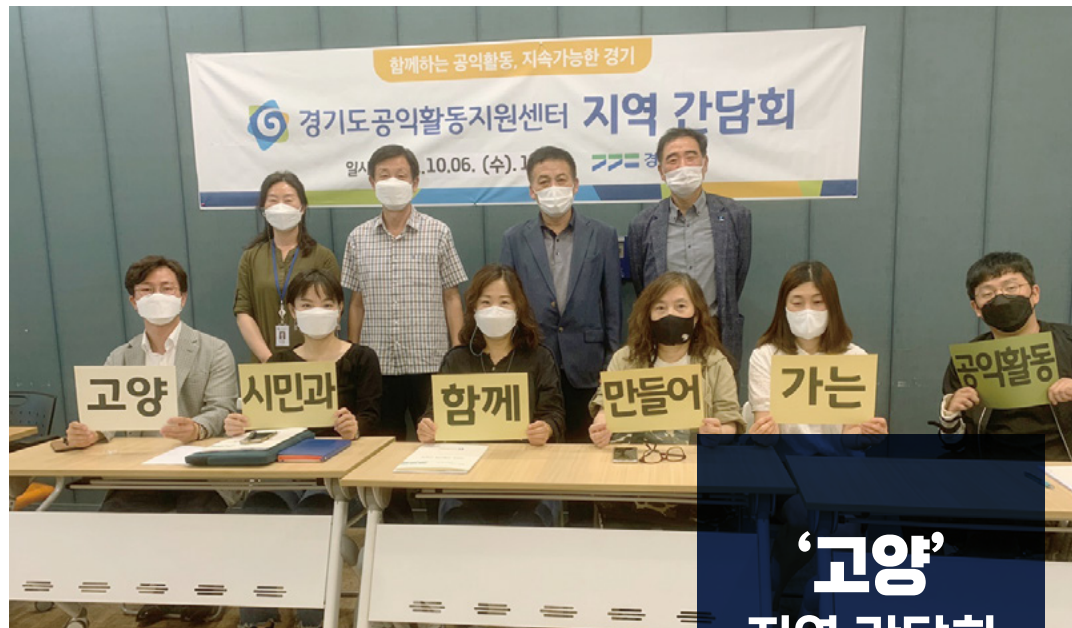
안명균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의 네트워크 지원, 공동의 공간 등의 지원으로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활동가들의 공론화 과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수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 조례 제정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추진하기로 함
- 오늘 간담회가 다시금 동기부여가 되어 조례 제정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겠음

오늘 간담회는 잠시 주춤했던 공동의 의제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하남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7]

‘고양’ 지역 간담회

일 시 2021. 10. 06(수). 14:00
장 소 한양문고 주엽점 한강홀
참여인원 11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10개 단체

1	고양시민회
2	고양여성민우회
3	행복한 미래교육 포럼
4	나들목 일산교회
5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6	평화누리
7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8	경기장애인포럼
9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10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익활동!!!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센터장의 시민 사회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변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간담회 이후 그 동안의 변화 공유]

- 국무총리실 표준조례 배포
-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
- 기본법안 발의
- 경기도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타 지역 진행상황

[지역 상황]

- 고양은 올해 두 번째 센터와의 간담회 진행
- 시민사회가 잘 움직이고 있지만 제도의 필요성을 인지, 올해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으로 공론화 과정 추진

- 고양네트워크 1차 간담회결과
 - 바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오해도 있었음
 - 공간, 인건비 지원 필요성 공유
 - 공간의 수요도 다양하므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임

[의견 나눔]

-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공론화가 되고 외연확장과 숙성되면서 더 나아가지 않을까?
- 공간의 거점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님
-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간인가? 사업인가?
- 중간지원조직, 예산지원, 인건비 등의 궁금한 사항에 질문함
- 얼마나 숙의과정을 거쳤는가 중요, 빨리 가는 것보다 심사숙고하는 과정 필수
- 가장 중요한 공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임
- 공론화 대상을 확대, 세력화하여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천천히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
- 시민단체의 연대가 중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단체들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함
- 각 단체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자원은 한정적,

- 단체 간 목표나 비전 공유하면서 센터의 필요성 논의가 중요
- 센터가 단체들이 각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좋겠음.
 - 중간지원조직 설립은 충분한 논의 필요
 - 공론화 후 준비위 형태로 추진하면 좋겠음
 - 타 센터와의 관계 등 가이드라인을 경기센터에서 제시해야 함
 - 고양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70여개가 있지만 각자 도생하고 있음
 - 공론화작업으로 외연확장 필요하고, 공간이든, 플랫폼형태이든 거점이 필요한 시점
 -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머무를 수 있게해야 지속가능하게 됨. 사람거점,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이 남아야 함

[향후 계획]

- 타 지역 센터의 직영의 운영방식에 문제점도 있지만 촉진장려사업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시도해보자
- 공론화 필요, 외연확장, 활성화 방향과 내용, 센터의 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며 가자
- 제안서를 작성하여 고양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그 안에서 TF 구성하겠음

[바라는 점]

- 업무환경의 개선 지원 필요, 공모사업의 정산, 회계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
- 공간은 굉장히 필요(단체 간 비용의 절감), 인적 자원은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을까?
- 활동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해 주길(육아휴직 등)

고양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가분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 센터역할과 조례 내용이 더 중요
- 시민단체 활성화되려면 활동가의 지속성이 중요
- 사람중심의 지원의 형태로 바뀌어야 함
- 개인과 조직, 타 센터와의 유기적 관계, 고양시와 시민과의 관계
- 센터를 중심으로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 준비위를 통해서 센터역할과 조례 내용의 논의가 필요
- 그 후 논의한 결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음

무엇보다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

사람을 지원하고, 사람이 남아야 하는 사람거점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에 모든 의미가 내포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8]

일시	2021. 10. 26(수). 18:30
장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인원	20명(도의원, 시의원, 행정, 시민사회단체)
참여단체	10개 단체

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김포장애인야학
3	김포여성의전화
4	진보당 김포
5	김포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6	참교육학부모회김포지회
7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8	김포시농민회
9	김포민예총
10	김포경실련



김포 시민사회

자립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익활동!!!



김포는 조례 제정 이후의 진행이 정체되어있어, 경기도센터를 통하여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관한 타 지역의 사례를 듣고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의회와 행정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요청하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센터장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간담회 이후 그 동안의 변화 공유]

- 국무총리실 표준조례 배포
-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
- 기본법안 발의
- 경기도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타 지역 진행상황

[지역 상황]

- 김포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센터와의 간담회 진행

- 2020년 간담회 이후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인식
- 본 센터의 또 다른 사업인 '시·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에서 지원받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7월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이후 행정의 인사이동 등으로 활동 지지부진

김포는 7월에 “김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 추진상황이 정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 촉진을 위한 경기도의원, 김포시의원, 행정,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 센터 설립지원 사업의 내년도 (2022년) 연장여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사례 등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안명균센터장은 경기도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을 설명한 후 김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배로 증가한 지역으로 신규 유입된 사람들이 동아리 모임으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와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지역에 등록된 43개의 비영리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정리하는 사업도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결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질문하였습니다.

안명균센터장은 김포의 비영리민간단체 명단을 드렸으니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없으면 힘있게 진행하기 어려우니** 목표를 위한 추진기구를 만들고, 연대체 소속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례에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설치 내용이 있으니 구성해서 센터설립, 방향, 행정적 지원사항 등을 충분히 논의하며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행정은 내년에 위원회 구성 前 수당 등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러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경기도 지원은 주민참여예산이고(시설비), 운영비는 지역의 자체예산인 것 같은데 내년엔 시설비 지원은 없는 상태여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한 활동가는 비영리단체인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주길 바라며,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 활동가 지원사업이 많이 공감이 된다고 하였고,

또 다른 활동가는 비영리단체에 등록할 능력이 안되는 열악한 단체들도 많으며 행정담당관이 바뀌면 다시 원위치 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는 진전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진행방향은 여론을 수렴

해야한다. 시민사회에서 답답한 부분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 수당 등 그런 부분은 없어도 되니 조속히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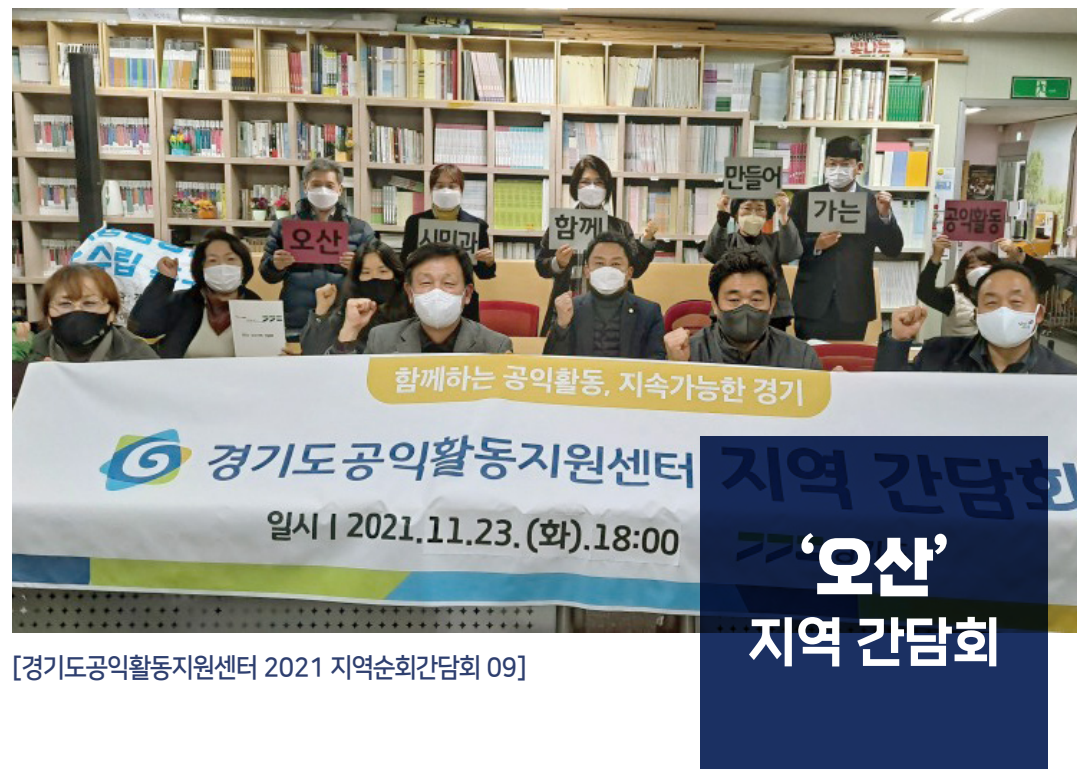
한 시의원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례제정에서 한번 부결되었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추후 오픈하고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원은 오늘 이후로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김포는 성숙했다고 생각하며 김포가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추후계획은 다음 달에 토론회를 준비할 예정에 있으니 가능하면 군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례를 듣고 오기를 권하면서 지난 경기도센터에서 추진한 권역별 간담회 시 군포의 사례를 들면 논의결과와 핵심은 **“단체를 지원하지 않고 사람을 지원한다”**였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시민사회 기준의 추진기구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중요함을 느꼈고 오늘 모이신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모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김포시가 되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09]

일 시 2021. 11. 23(화). 18:00
장 소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여인원 13명(도의원, 시의원, 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6개 단체

1	오산노동권익센터	4	오산환경운동연합
2	오산문화재단	5	편안노인요양센터
3	오산평화의소녀상	6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간담회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 센터장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변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간담회 이후 그 동안의 변화 공유]

- 국무총리실 표준조례 배포
-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
- 기본법안 발의
- 경기도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타 지역 진행상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공간도 없고 고유번호증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사무실 공간의 부재 등)으로 형태는 동아리처럼 되어 있으나 이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들은 스타트업 대상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최근 5년 사이에는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거의 없으며, 10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 등 만들기가 어려워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아도 시의 여러 가지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굳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는데 절차만 복잡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요즘은 공동된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활동들을 하다가 해결되면 바로 해체되어 공익활동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사회는 조그마한 공동체부터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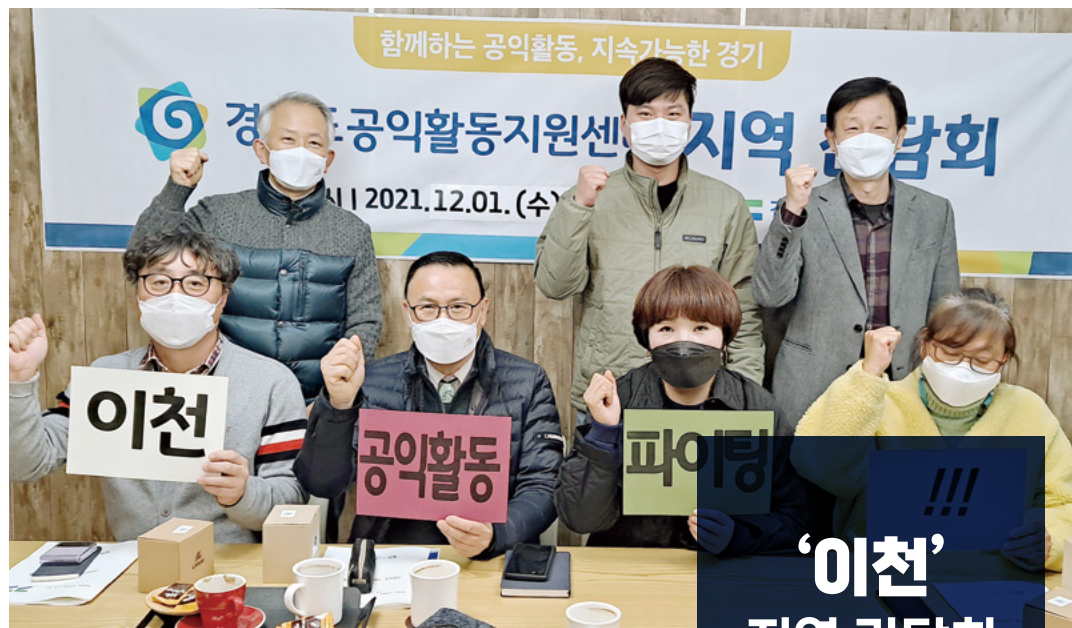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은 신규 유입된 시민들과 기존의 시민들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잘 조직될 수 있어야 지역이 건강

하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산시에 제안을 드리면 지역의 현안을 지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보고 공간이 부족한 단체들에게 공유공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으니 시의회에서 정책공약으로 내세워 주시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시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분 사회론에서도 국가(정부)와 시장(기업), 시민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사회 역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봉사만으로 인식되어 비영리민간단체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사회 활성화가 향후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것이고 공익활동도 생산활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일 년에 한 번씩 지역에서 열심히 공익활동을 펼친 활동가에게(이름있고 덕망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하여 열심히 활동하면 이렇게 보상도 받는다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경기도의원, 오산시의원 여러 분, 행정,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모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산시민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지역순회간담회 10]

‘이천’ 지역 간담회

일 시 2021. 12. 01(수). 13:00
장 소 굿커피베데스다 이천
참여인원 6명(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가)
참여단체 3개 단체

1	이천여주경실련	3	이천YMCA
2	설봉포럼		



이천의 침체된 시민사회를 위하여 활성화가 더욱 더 절실!!!

이천지역 간담회 첫 개최
2020년에 지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나 이천과 가평이 미개최 지역이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천지역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야기 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센터장의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변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변화 공유]

- 국무총리실 표준조례 배포
-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
- 기본법안 발의
- 경기도 조례 제·개정 현황 및 타 지역 진행상황

이천은 간담회가 처음이라 2년 동안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과정과 사회적 흐름, 센터의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모두 설명드렸더니 시민사회의 영역부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개별단체의 지원 가능 여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질문은 곧 **시민단체의 어려움, 신규 청년 활동가 발굴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 활동가들의 노후화, 회비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으니 단체 운영이 힘들다**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신규 공익활동가의 유입과 단체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했었던 활동가는 이들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공익센터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단체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신규 활동가들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활동가들의 노후화와 단체 간 네트워크 활동이 없어 폐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더 문제이고, 함께 할 단체들도 없으니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의견과 열악한 비영리단체를 위하여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니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처음에 어떤 단체들이 주축이 되느냐가 중요하니 시작하는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과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필요하면 연구용역 등도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천활동가분들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내년에도 이천의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이천간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이천여주경실련 주상욱 사무국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

- 참여 단체를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활동은 오늘 모인단체뿐이니 공익센터가 연대를 만들어 주길(이런일이 있으니 함께해주십사 끌어들임을 센터가 해주었으면)

“
권역별
간담회
”



공익활동 지역순회간담회-권역별간담회



공익활동지원센터

너에게 길을 묻다!!

북부권: 10/13(수) 14:00
고양,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중부권: 10/14(목) 15:00
과천, 광명, 광주, 구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양평, 의왕, 하남

남부권: 10/15(금) 15:00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여주, 이천, 평택, 화성

참여방법
QR코드, 네이버폼
참가신청서 이메일 접수
(griunna@gggongik.or.kr)

대상
경기도 시·군별
공익활동가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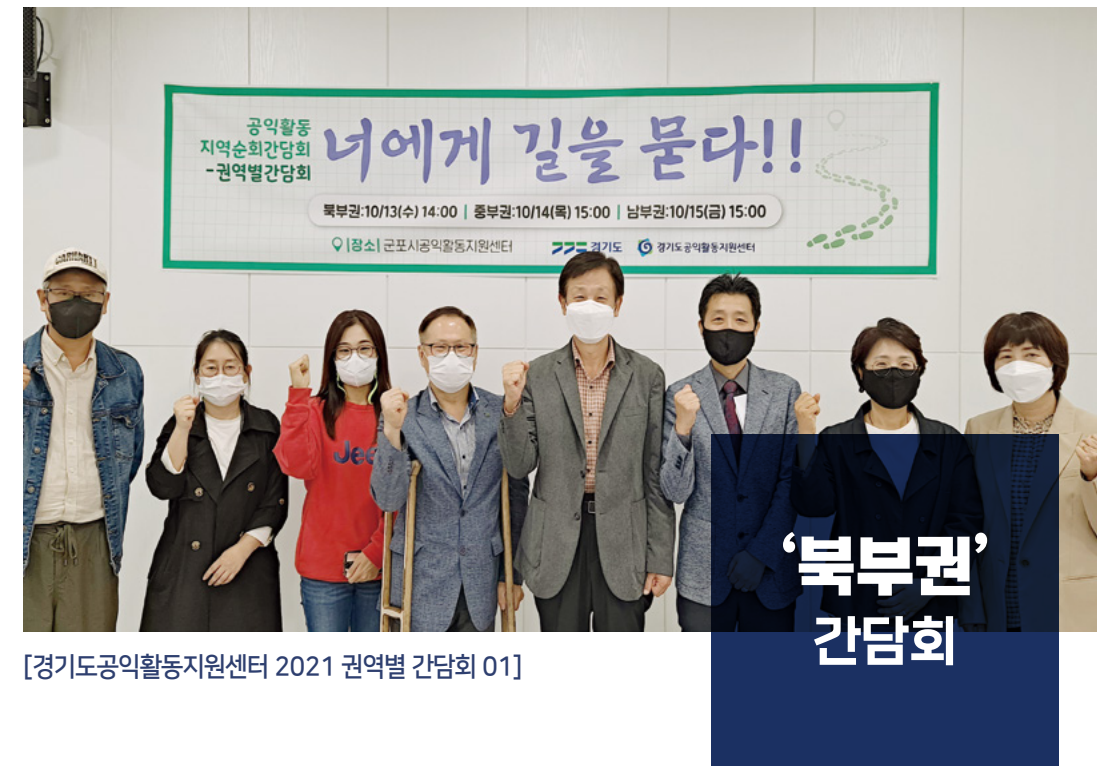
장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내용
군포센터 시설견학
군포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함께하는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경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순회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권역별 간담회 01]

일 시 2021. 10. 13(수). 14:00
장 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참여인원 7명
참여지역 및 단체 4개 지역 / 6개 단체

번호	지역	단체명	번호	지역	단체명
1	김포	김포경실련	4	양주	양주시공익활동추진위
2	안산	더좋은공동체	5	양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 지회
3	안산	안산시민사회연대	6	의정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권역별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군포는 경기도 시·군 중 최초로 작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5월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민관의 협치가 돋보였던 모범 사례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민들을 묻고 이야기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 다른 지역의 상황도 알 수 있는 공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3일(수) ~ 15일(금) 3일 동안 연이어 권역별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만남~
우선 간단한 인사를 드린 후
경기도와 군포시의 두 센터장의 PT시간~



군포시공익활동센터 이태우센터장의 설명

그리고 간담회의 이유!!

참여해주신 분들의 개별 소개 후 경기센터장, 군포센터장, 군포센터설립을 위한 TF위원이셨던 안영신위원을 앞으로 모셔서 본격적인 군포 사례를 묻고 이야기하는 시간^^

오늘 참여하신 지역의 애로사항은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의 위축과 공익활동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참여 방안,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여 조례 제정과 센터설립에 대한 내부 고민, 그리고 시의회와 행정, 시민사회의 협치의 미완성...

모두 지역마다 고민들이 다를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함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멘토이신 세 분께서 하나라도 더 알려 드리려는 열정과 하나라도 더 질문하고픈 열정으로 오늘 간담회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북부권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공익활동가분들과 멘토이신 세 분에게 모두 감사함을 전합니다.
권역별로 모이는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며, 앞으로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자주 만들어 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눈 덮인 험한 길 위를 걸어가야 할 때!! 막막함...

그런데 누군가 먼저 지나간 발자욱!
우린 그 발자욱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센터장의 설명



안명균센터장, 안영신위원, 이태우센터장의 즉문즉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권역별 간담회 02]

일 시 2021. 10. 14(목). 15:00

장 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참여인원 12명

참여지역 및 단체 7개 지역 / 11개 단체

번호	지역	단체명	번호	지역	단체명
1	과천	과천활동가네트워크	7	구리	구리남양주시민연대
2	광명	광명YWCA	8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
3		광명경실련	9	양평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
4	광주	광주힐링협동조합	10	연천	연천여성연대
5		함께여는광주연대	11		연천가정폭력상담소
6	안양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너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권역별 간담회 두 번째 시간으로 중부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중부권 지역이 가장 많아 참여자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해당 권역에 일정이 안되어 다른 날짜에 오신 지역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군센터장의 설명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센터장의 설명

지역의 애로사항은 신도시 유입으로 인한 시민통합, 시민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과의 관계, 청년공익활동가와 지역 시민단체 지원, 광역센터와 기초의 공익활동가의 관계 설정, 센터의 설립방향, 절차, 설립후의 활동, 실질적인 민관협치 방안과 네트워크 확대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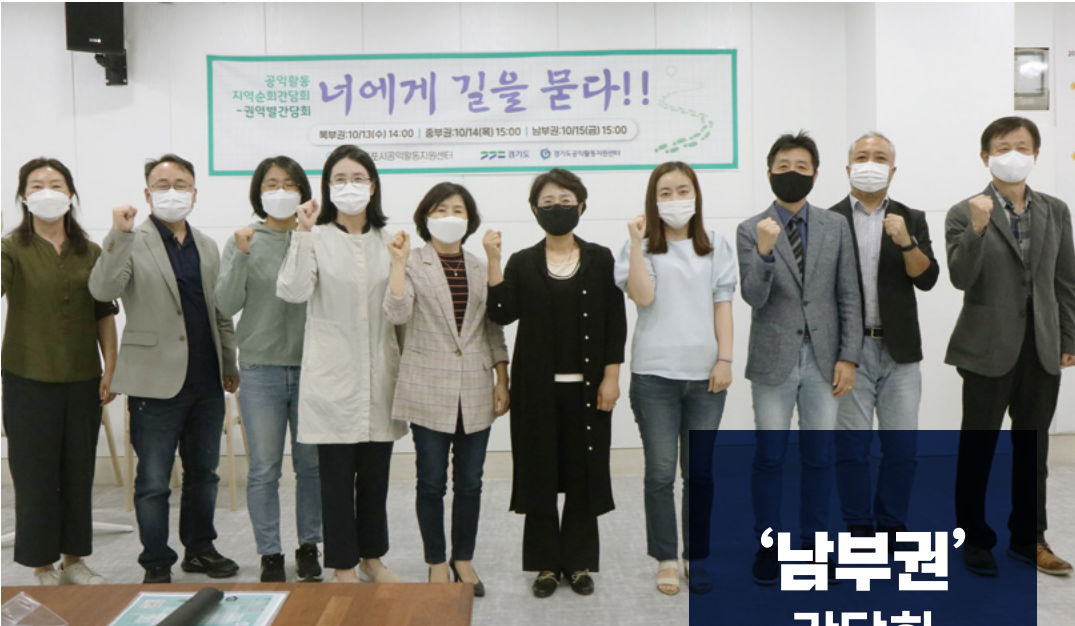
활성화 방안, 내년도 사업 방향과 내용, 민관협치 운영방식과 사례, 민간위탁 과정과 준비, 운영내용, 시민단체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조례 제정 관련,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 유지하는 비결 등을 한 지역씩 돌아가며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부권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공익활동가분들에게 모두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어김없이 다른 지역의 상황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마지막으로 남부권 간담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권역별 간담회 03]

일 시 2021. 10. 15(금) 15:00
장 소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참여인원 6명
참여지역 및 단체 5개 지역 / 5개 단체

번호	지역	단체명	번호	지역	단체명
1	수원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4	고양	고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	안성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5	포천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
3	성남	성남KYC			

“너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권역별 간담회 마지막 시간으로 남부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안명균센터장의 설명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태우센터장의 설명

지역에서의 애로사항은 많은 단체들과 일정조율의 어려움, 신규 활동가 발굴 및 육성, 많은 단체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 방법, 2년 뒤의 수탁기관의 변경 시 대비책, 시민단체의 열악한 여건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방법, 센터 설립과정 및 이에 미치는 중요 요소, 센터 운영방식, 군포센터의 중점사업 등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질문의 포인트도 다양했습니다.

오늘 남부권 간담회를 끝으로 3일 동안의 권역별 간담회 “너에게 길을 묻다!!”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껏 저희 센터가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에서 경기도 시·군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기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전 단계로 도약하였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경험했던 지역의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각자의 지역에 맞게 녹여낼 것인가의 고민속에서 이번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좌부터 안명균센터장, 안영신위원, 이태우센터장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지역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픈 마음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고, 정보 공유해주신 경기 안명균센터장, 군포 이태우센터장, 안영신위원님과 참여해주신 지역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경기도 31개 시·군의 네트워크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의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 경기도 타 지역들의 조례, 센터설립 관련 진행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었다.
-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인데도 꾸준히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 이런 간담회가 필요하고, 더 자주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지역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을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알리면 좋겠다.
- 공익활동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 힘들고 어렵지만 각 지역의 소통을 자주 하였으면 좋겠다.
- 북부지역의 경우 원거리로 참가가 힘들다.
- 구체적 과정, 사례 공유를 통하여 가능성을 얻었다.
- 진행사례, 모범사례 등 많은 도움과 업무 진행시 참고가 될 수 있을 듯하다.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간담회를 통해 과정 등의 여러 자료와 의견, 방향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지금까지 지속적인 정보 공유 해주시고 이번 네트워크 좋았다.

지역과 지역간
네트워크의
필요성 제기



성과 공유회 “지난 2년간의 여정”

「지역순회 간담회를 되돌아보다!」

일 시 2021. 11. 25(목). 14:00
장 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참여대상 31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인원 14개 지역 15명

번호	지역	단체명	번호	지역	단체명
1	과천	과천활동가네트워크	9	수원	수원여성의전화
2	광주	함께여는 광주연대	10	양평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	구리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	11	여주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4	"	구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2	연천	연천여성연대
5	김포	김포경실련	13	용인	용인시민파워
6	남양주	기후위기비상행동	14	평택	평택YMCA
7	부천	부천YMCA	15	화성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8	성남	성남KYC			



주요 내용

- 2년간의 지역순회 간담회 발자취(PT)
- 향후 간담회 방향성
- 2022년 센터 사업계획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간담회가 던진 숙제 ”



간담회가 던진 숙제

각 단체별 고유사업에 치중했던 우리가
우리의 활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활동가들의
미래는?

공익활동의 개념,
범위는?

지역연대로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어!

우리는 누가
지원해 줄 수 있지?

그 과정에 소통과 협력하는 방법!!
우리는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쉽 없이 달려온 우리의 활동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잠시 멈춰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처음 모이는 계기가 되었고,
공동의 의제로 소통하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도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신규활동가
발굴이 필요해!

발 행 일 2022년 1월
발 행 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 행 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장
디 자 인 청 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 9층
전 화 031-267-4340
팩 스 031-267-4339
이 메 일 center@gggongik.or.kr
홈페이지 www.gggongik.or.kr

“

사람은 자본이 없어도 산을 옮길 수 있으나,
사람이 없는 자본은 아무런 쓸 데가 없다.

Peter Drucker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Gyeonggi center for Public Interest Support